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힘든 상황 중에 전쟁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과 혼란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고 그 악조건 속에서 피어날 복음의 역사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깨어 났었다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34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2년 4월 9일 (토) 제 1869호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예수님의 죽음, 생명과 부활의 약속!

2022년 고난주간 맞아 교회전통 '거룩한 3일' 통한 주님의 고난 묵상 참여 제안

“오! 하나님! 죽어서 당신의 그 아름다운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어떤 고통도 달게 받겠습니다. 죽음도 서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성 어거스틴). “주님의 고난은 현세 생활의 수고와 고통과 운명을 가리킵니다만 주님의 부활과 그 영광은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성 어거스틴). “부활은 선의 승리, 사랑의 승리다”(성 어거스틴).

갑작스레 시작된 격리, 격변, 상실, 그리고 질병이 2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함께 슬퍼한다. 죽음은 현실이고 슬픔은 고통스러웠

고 우리의 격리는 끝나지 않을 거라 느꼈다. 우리는 총기 난사, 인종 차별 테러 등을 계속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절망의 성금요일을 경험한다. 그리고 성토요일에도 이렇게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닌지 절망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과 고통이 우리의 적이지만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희망하며 고대한다. 드디어 승리와 생명이 다가온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세상의 역사를 바꾼 고난주간을 묵상과 말씀에 더 집중해서 코로나19 유행병으로 인한 엄청난 고난과 삶속에서 꽃망울 같은 희망을 만끽해야한다.



코로나19 지구촌 불평등 심화한다!

BBC, 다른 전염병처럼 빈국 질병으로 고착 경고

봉쇄조치, 재택학습에서부터 백신 접근성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의 불평등은 더욱 두드러졌다. 이제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를 해제하며 정상으로 되돌아가고자 노력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새로운 '경계선'이 그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일부 사람들, 특히 부국의 시민들은 이제 대유행의 영향에서 벗어나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빈국의 시민들은 코로나19의 영향에 훨씬 더 오래 노출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빈국에 더 오래 자리 잡아 이들 국가의 질병이 돼 버릴지 살펴본다(Will COVID-19 become a disease of poor countries?).

코로나19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에도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와 같은 전염병은 한때 부유한 국가에서도 골칫거리였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전염병은 주로 빈국을 위협한다.

신중국 연구진은 미국 시사 월간지 '더 애틀란틱'의 기고문(The Pandemic Is Following a Very Predictable and Depressing Pattern)에서 코로나19가 다른 전염병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한 "예측 가능하고 우울한 패턴"을 따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3면



푸른초장 이지용 목사 4면



교회선교의선순환 조용중 선교사 13면

기독교는 예수의 고난과 부활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종교다. 예수는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겐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지만 십자가의 짐을 피할 수는 없었다. 즉, 고난이란 구원에 앞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무엇이다.

기독교적 자기반성은 성경에 나타난 온갖 고난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노예생활부터 예수의 죽음에 이르는 이 수난의 역사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고 믿는 뿌리 깊은 전통을 뜻한다. 결국 "자기의 발견"이란 곧 고난 받는 자기의 발견이 된다.

그래서 교회 전통은 사순절 기간 가운데 절정인 마지막 주를 '고난주간'이라 부르며 지켜왔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주간에 관한 종교음악을 만들었다. 특히 바로크 시대(17-18세기)에 많은 수난곡(Passion Music)이 만들어졌다. 마태수난곡, 누가수난곡, 마가수난곡, 요한수난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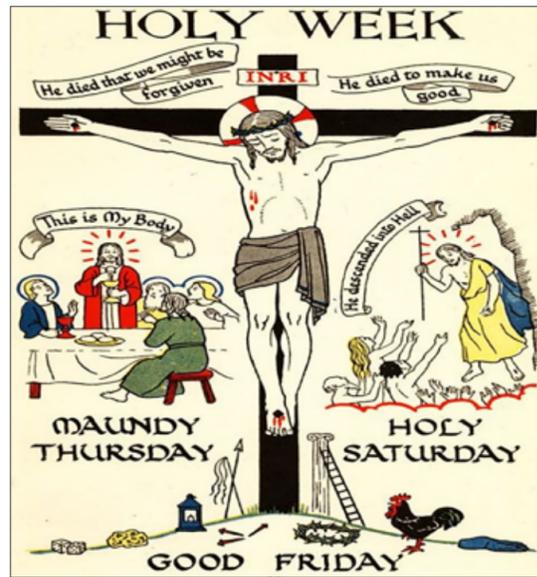
수난곡은 '패션'(Passion)이라고 한다.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고난'이라는

말이다. 바흐(J. S. Bach)의 마태수난곡 가운데 일부를 H. L. Hassler가 1601년에 클레르보의 성 버나드(St. Bernard of Clairvaux)의 가사를 붙여 만든 것이 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이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익숙한 찬송이다. 고난주간이 만들어준 좋은 기독교 문화다.

전통적으로 고난주간의 클라이막스는 단연 파스카 트리둠(Pascha Triduum)이다. 트리둠은 '3일'이란 뜻으로, 고난주간의 마지막 3일인 목, 금, 토요일을 의미하며, '거룩한 3일(Holy Triduum)'이라고도 불린다.

'거룩한 3일(Holy Triduum)'

첫 번째 날인 목요일은 영어로는 'Maundy Thursday'라고 불리는데, 우리말로로는 흔히 '세족 목요일'이라고 번역되고 있지만 실제로 Maundy라는 단어는 mandatum이라는 라틴어에서 왔기 때문에 세족의 목요일보다는 '맹세의 목요일' 혹은 '계약의 목요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날은 당연히 예수님이 잡



히시기 전 날을 뜻한다.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이라는 말로 성찬을 소개한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며 성찬을 가르쳐 주신 날도 이 목요일이다.

또한 '세족(洗足)'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몸소 겸손의 미덕을 가르치신 것도 이 날에 행해졌다. 그리고

새로운 계명도 주셨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나온다. 이것은 크리스천들은 그동안 지켜왔던 모세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라는 의미다.

(3면으로 계속)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press.net | 323-737-7699, 800-669-0451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7

기초반: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중급반: 매주 금요일 오전 10:30
문의: 714-470-4563
말씀가르기기
말씀을 묵상하며 캘리를 배우는 캘리그라피 클래스가 O.C.와 L.A. 지역에서 오픈되었습니다.

3분의 미라클

3min. miracle

하나의 QT 인 동시에 짧은 설교입니다. 평이한 것 같지만 깊은 묵상을 거친 것이기에 말씀에 나뭇잎이 있고 통찰력을 주는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평신도 뿐 아니라 설교자들에게도 지혜와 통찰력을 주는 예화와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 바탕을 둔 성경적인 그의 메시지는 쉬우면서도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줍니다. 그의 메시지는 시원함을 주는 생수 같아요. - 레저월드 동부평강교회 김삼도 목사

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평신도들에게 유익하고 목사님들도 예화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미주크리스천 신문 편집장 유원정

탁구회원들의 단체 카톡방에 올린 3분의 미라클은 무더운 여름철의 냉수처럼 목사님 저에게도 많은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 탁구동 회장 고신 최동석 목사

3분의 미라클은 정말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너무 좋은 책입니다. 한 장씩 읽을 때마다 아멘이 절로 나오고 제가 믿는 믿음과도 너무 일치 됩니다.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도 승리할수 있는 해답을 주고 있어요. - 찬양 반주자 최영애 권사

저자 **이정현** 교수
현 미주 크리스천 신문 상담 칼럼 담당
현 개혁신학교 대학 및 신학 대학원 총장

구입문의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 온라인 : WWW.HISFINGERMALL.COM / 주문처 : 이희은 1360 SHADOWBROOK TERRACE, HARBOR CITY CA 90710 / E-mail : TLspc0316@gmail.com/ Tel: (310) 749-4756

Hisfinger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시 8:3) ... 예수께서 물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요 8:6)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가격 : 30분 (책값 및 발송비 포함) / 선물용 4권을 사시면 100불(발송료 무료)
출판상담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718) 886-4400 HISFINGER8386@GMAIL.COM

발행인 칼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나가는 자들이 아우성친다.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있지만 말고 내려와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한다. 왜 못 내려오시겠는가. 열두 번도 더 내려오실 수 있으나 끝내 내려오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안 내려오셨다. 다양한 사람들이 십자가 주변에 있었다. 그들에게 공통된 것이 있으니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인류 구원의 길이 십자가 외에 없으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비워두고 내려오실 수 없으셨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무지몽매한 무리의 외침에 “시간”을 더하여 합세한 이들이 있다. 그들이 누군지 천천히 확인해 보시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막15:29-32).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외쳤다. 머리엔 가시관, 손과 발에 못, 온몸에 채찍 자국, 십자가의 상처와 고통이 가장 격렬해져 갈 때, 유혹의 소리도 점점 커진다. 그만 못 거리고 지금 당장 십자가를 벗어던지라고 한다. 지금은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며 동시에 유혹의 시간이기도 하다. 누군가 말했다. 세 가지 귀한 금이 있다는 것이다.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 그렇다. 지금이 곧바로 엄청난 미래의 도약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지금이 순식간에 절망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나의 지금은 어떤 지금인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를 이기신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셨나.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눅23:46) 숨지실 때까지 십자가 위에 계셨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도 받으셨다. 육체의 고통보다 사람의 조롱보다 하나님의 외면이 더 힘들지 않으셨겠는가. 지금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다. 고통과 어둠 속에서도 빛난 신뢰.

로마의 카타콤베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자리. 지하 깊은 그곳을 잠깐 방문할 수는 있어도 머문다던가 더구나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곳이었다. 거기서 그들은 “이게 뭐냐, 지금 당장이 어두운 지하를 버리고 저 찬란한 지상으로 올라가라”는 마귀의 부추김을 얼마나 받았겠는가. 카타콤베의 그들은 평생 동안 “지금의 유혹”을 “지금의 충성”으로 살아낸 것이다. 그들은 고통과 어둠의 지하에서 바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 우리에게도 “지금 내 집을 내려놓으라, 지금 그 일을 그만두라, 지금 재미있는 길이 있다.” 지금이 지금, 감언이설과 교묘한 춤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결코 흔들리지 말자. 그날까지.

거짓이 뿌리 내리면 사회적 신뢰 쇠퇴

TGC, 디지털 사역자P. 밀러 목사의 온라인에서 잘못된 허위 정보 피하는 법 소개

소셜미디어가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아홉 번째 계명(출20:16)을 아예 지워버리고 있다. 거짓이 뿌리를 내리면 사회적 신뢰가 쇠퇴한다. “무엇이 진짜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다들 이렇게 말하게 되는 세상에서는 친구가 친구를 믿을 수 없게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마10:16). 소셜 인터넷 시대에 이것은 냉소주의

의 유혹을 거부하는 동시에 거짓이 퍼지는 방식에 대해 지혜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소셜미디어에는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와 허위 정보(disinformation)라는 2가지 종류의 거짓이 만연한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저항을 향한 첫 번째 단계다(How to Avoid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Online).

다음은 TGC가 보도한 디지털 사역자 패트릭 밀러 목사의 ‘온라인에서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를 피하는 법’에 대해 소개한다.

잘못된 정보는 (1)악의 없이 공유되는 의도하지 않은 거짓과 (2)실제 사건을 탈맥락화하거나 기만적으로 재구성해 생성된 거짓이라는 2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 종종 의도하지 않은 거짓 말에는 9.11 테러 당시 93편에 탑승한 토드 비머(Todd Beamer)의 조작된 전화통화 녹취록처럼 마음 훈훈한 이야기도 포함된다. 녹취록 “대본”은 확실히 유행했고, 그렇기에 이 재구성된 대화의 스크린샷이 지난 9월 기독교 트위터에서 입소문을 탔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엄청난 리트윗 수는 필자를 포함한

되고, 분노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알고리즘이 작동하면서 그 점을 더 강조한다.

우리는 적에 대해서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스 2세 여왕이 임박한 제3차 세계대전 발발에 대한 경고를 하다 등등.

대부분 미국인은 2016년 선거 전까지만 해도 이런 디지털 허위정보 캠페인을 인

를 쉽게 찾을 수 없도록 하라.

5. 유용한 바보: 적개심에 넘치는, 그래서 어떤 거짓말이라도 쉽게 믿을 사람들을 식별하라. 그들을 거짓을 열심히 퍼 나르는 무식한 돌쇠(mules)로 삼으라.

6. 모든 것을 부인하라: 증거가 무엇이건, 무조건 아니라고, 거짓의 조작에 연루된 모든 것을 부인하라.

7. 장기전: 오랜 시간 동안 뿌린 수많은 거짓 중에서 단지 몇 개만 뿌리를 내린다. 그러므로 되도록 많은 씨를 뿌려라. 그리고 씩이 나오는 것을 보고 가장 가능성 있는 거짓에 더 투자하라.



상위 20개 기독교 페이스북중 19개, 외국 악의적 단체가 운용 냉소주의가 비진리 답될 수 없어, 진실 추구로 진리 사랑해야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라는 데 확신하도록 했다.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그럼 왜 그렇게 퍼졌을까?

모든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성공적인 게시물(댓글, 좋아요, 또는 공유와 같이 참여를 유도하는 게시물)을 찾아내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게시하도록 설계됐다. 결과적으로 이런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무르게 해 더 많은 광고 수익을 내도록 한다. 그러니까 감정을 사로잡는 게시물일수록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뭐가 중요한가?

탈맥락화된 잘못된 정보: 당파적 뉴스사이트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이야기(narrative)에 힘을 실기 위해 핵심 맥락을 제거한 인용문이나 비디오 클립을 게시하곤 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것을 좋아한다. 따라서 적에 관해서만은 표면적으로 아무 리 터무니없는 이야기나 인용문을 만나더라도 더 넓은 맥락에서 진실 여부를 조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허위정보는 분열, 불신, 증오를 조장할 목적으로 사악한 주동자들(agents)이 조작한 거짓이야기, 사진, 인포그래픽, 또는 인용문이다. 중국, 이란, 러시아가 미국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바이러성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데 필요한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조작에 능숙하다는 게 이미 입증됐다.

외국에서 만들어진 이런 사례는 아주 많다. 이슬람국가(ISIS)가 루이지애나에서 화학폭발을 일으키고, 오하이오에서 치명적인 인이 누출되고,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상업용 항공기를 격추하고, 알래스카가 연방탈퇴를 청원하고, 2017년 엘리자베

지하지 못했다. 그 당시 러시아 요원이 두 후보에 대해 넘치는 거짓이야기를 게시했으며, 양측 후보가 다 그런 거짓정보를 사실이라고 철쭉같이 믿었다.

자기네들 사이에서 ‘적극적인 조치’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허위정보 행동방식(playbook)은 인터넷보다 훨씬 앞서서 KGB가 개발했다. 뉴욕타임스는 탁월한 한 다큐시리즈에서 허위정보를 뿌리기 위한 KGB의 7단계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 1. 균열 찾기: 가장 분열되고 적대적인 사회를 찾아 그곳을 완전히 붕괴시켜라.
2. 큰 거짓말: 차마 거짓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정도로 엄청난 거짓말을 만들어내라.
3. 진실 편집(kernel): 신뢰를 주기 위해서라도 거짓 주변에 약간의 진실을 양념으로 섞어주라.
4. 손 숨기기: 거짓의 출처

결국 허위 정보와 잘못된 정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거짓에 맞서 무장하는 첫 번째 단계다. 다음은 온라인에서 거짓을 현명하게 피하기 위한 6가지 추가 원칙이다:

- 1. 선정적인 헤드라인을 검증하라. 이야기 또는 인용문이 이상하게 들린다면, 아마도 그건 진짜로 이상해서 그럴 것이다. 우리에게는 적을 악마화 하는 헤드라인을 믿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싫어하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게시물을 읽을 때 각별한 주의 기울여야 한다. 알고리즘은 당신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 있다. 분노에 불탄 당신을 플랫폼에 일조라도 더 머물게 할 수만 있다면, 알고리즘은 당신의 분노에 불을 붙이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 (1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3.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4.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5.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2022년 봄학기 온라인 수업일정
1월10일 - 3월6일
DI8310 History of Christian Mission (기독교 선교역사)
2022년 여름학기 수업일정
5월23일 - 7월17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교차문화 의사소통)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E-mail: gtskoreanstudies@grace.edu 카톡 ID: KoreanGTS

예수님의 죽음...

(1면에서 계속)

두 번째 날인 금요일은 영어로 'Good Friday'라고 불리며, 우리말로로는 '성금요일'이다. 고난주간의 하이라이트이자, 교회절기 중에 가장 거룩하고 엄숙한 날이다.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다.

아무리 금식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도 교회에서는 이 날만큼은 금식을 권유한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로 무력하게 고통을 겪은 날이기 때문이다.

대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릴 때면 모든 데코레이션을 없애는 것이 전통이다. 교회 뒷벽에 걸려 둔 배너도 내리고, 제단에 놓인 십자가나 촛대도 없앤다.

1년 중 가장 경건하고 금욕적인 시간으로 보내지는 의미다.

굳이 시간을 따지면 예수님은 이날 새벽에 갯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난 후 잡히셨고 아침 일찍 재판을 받아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6시간 동안 고통 받다가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는 말과 함께 돌아가신다.

세 번째 날인 토요일은 영어로 'Holy Saturday'라고 불리며 우리말로로는 '거룩한 토요일'로 번역된다. 이 날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다. 돌아가신 후 죽은 자들과 온 하루를 함께 있었던 날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육신은 전날인 금요일에는 고초를 겪고 돌아가셨고 다음날인 주일에는 다시 부활하셨지만 토요일만큼은 온전히 온 하루를 생명 없이 보내셨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토요일도 성금요일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하루를 보낼 것을 권면한다.

하지만 다음날인 부활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토요일은 무척 바쁘고 분주한 날이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미국교회는 종종 사순절의 경건과 금욕의 시간을 금요일까지로 마감하고 토요일은 웃고 즐기며 다음날 부활절을 준비한다.

앞서 인용한 성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우리가 매년 예수님의 죽음을 기리고 묵상하는 이유는 다른 이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다. 다른 이들의 죽음은 우리에게 추억과 교훈만을 남기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 자체로 우리의 생명과 부활의 약속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매년 지키는 교회절기 중에 가장 거룩한 시간이 고난

주간 특히 '거룩한 3일'동안 이뤄진다. 영국 시인 로렌스 하우스먼은 이 거룩한 시간 속에 무엇을 묵상하며 보내야 하는가를 일찍이 간단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인도한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나 무엇을 저야 하겠습니까?
주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나나 무엇을 써야 하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셨습니다.
나나 누구를 돌보아야 하겠습니까?
주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나나 내가 감히 무엇을 더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론

양분화 된 시대 속에서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지난 3월말에 미국에서는 역사에 남을 수도 있는 중요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상원 법사위에서 이번엔 은퇴하는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의 후임자로 233년 만에 처음으로 흑인 여성 커탄지 잭슨(Ketanji Jackson)의 인준을 위한 청문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상원은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이 각각 50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지지를 통해서도 인준받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잭슨 판사는 마이애미 출신으로 하버드대 학부와 로스쿨을 졸업했고 은퇴하는 브라이어 대법관 밑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는데 인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민주당, 공화 각각 11명, 전체 22명으로 구성된 상원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상원 전체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법사위에서의 쟁점으로는 성전환자에 대한 관점, 특히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을 일반여성들과 운동경쟁을 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와 성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 테네스 주의 상원의원인 블랙번이 잭슨에게 '여자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나는 생물학자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여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습니.

현재 상원은 50 대 50으로 민주당, 공화 양당이 첨예하게 대응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 대법원판사의 인준이 있을 때마다 자신이 속한 당의 방향대로 투표하게 되고 그 결과 인준 받은 당사자들은 상원 전체의 지지보다 특정한 당으로부터는 철저하게 후원을 받지만 반면에 상대편 당으로부터는 철저하게 거부를 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인준을 받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인 브렛 캐버니는 50:48로, 에이미 베렛은 52:48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1993년에 인준을 받은 진보성향의 루스 베이더 판사는 96:3으로, 1986년 인준을 받은 보수성향의 안토닌 스칼리아 판사는 98:0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

상원 전체의 압도적인 지지로 인준을 받을 경우에는 인준 받은 판사가 내리는 판결에 대해 훨씬 더 쉽게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사인준이 철저하게 자신이 속한 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찬성과 반대로 나눠지게 되면 이렇게 인준을 받은 대법원 판사들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국민들 사이에서도 사상적인 갈등과 분쟁을 만들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 전반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양분화 된 사회를 살고 있는 오늘의 신앙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양분하고 있는 주제들을 들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어느 지점에 선가 돌로 나눠지지 않고 하나로 있었던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무엇 때문에 하나에서 둘로 갈라지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을 진실하게 듣게 될 때 비로소 양분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따라 가야 할 참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며 굽어진 것을 제대로 펴지도 않은 채 울퉁고 반듯한 결과를 바라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양분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성경을 들고서 굽어지고 갈라진 시대를 바르게 펴고 통합시켜가는 평화의 걸음을 걸어 가기를 기도하며, 샬롬.

hankschoi@gmail.com



능성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 백신은 사람 간의 바이러스 전파를 상당히 차단한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 효과를 어느 정도 우회해 돌파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데도 말이다.

이여수스 WHO 사무총장 지난 1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많은 국가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감염 취약 계층의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에선 더욱 그렇다"라고 밝혔

코로나19 지구촌...

(1면에서 계속)

영국 또한 대중을 위한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이번 4월부터 잉글랜드에서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런던 연구팀이 진행하는 코로나19 감염 사례 연구인 'REACT'나 킹스칼리지 런던 연구팀의 증상 연구인 'Zoe Covid' 등의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서비스 모두 바이러스의 동태와 변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학자들에게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해왔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3월 10일 승인된 대규모 지출안에서 관련 자금이 삭감되면서 항바

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선진국의 정책은 "좋은 싫든 빈국의 상황을 좌우한다"라고 밝혔다.

일단 몇몇 국가가 대유행이 끝났다고 선언하게 되면 다른 국가도 시민들로부터 방역 조치를 완화하라는 압박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샘-아구두 교수는 불규칙한 백신 공급이 아프리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아프리카는 현재 충분한 양의 백신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거나, 공급받은 백신도 유통기한이 가깝다고 말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그렇듯 아프리카인들 또한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에 "지친" 상태지만 면역력 부족으로 인해 접종을 향한 동기를 잃어

방역조치 해제 증가...새로운 경계선 예측 선진국, 전 세계에 각종 지원과 자금 회수

이러스 치료제 및 추가백신 구매를 위한 지원 자금이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의회에 225억 달러 규모의 별도 지출안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야당인 공화당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없다면 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이지리아에 있는 미국 메릴랜드 의과대학 인체 바이러스학 연구소의 나디아 샘-아구두 부교수는 이러한 선진국의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더 아틀란틱의 기고문 공동 저자이기도 한 샘-아구두 교수

가고 있다. 백신 접종이 지연되면서 거짓 정보가 퍼지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이 백신 접종을 망설이게 된다는 것이 샘-아구두 교수의 설명이다. 샘-아구두 교수는 "더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그렇게 활발하게 감시하지 않는다"라며 "외면하는 상태로 볼 수 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코로나19가 빈국에 더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싶으므로 코로나19의 빈국 집중이 '불가피하다'고 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전파 캐치업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

그러나 빈국들은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한참 멀어 보인다.

샘-아구두 교수는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이다. 어떤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돼 단기간 면역력을 획득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백신접종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계속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마치 '적자생존' 방식처럼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은 죽어 나갈 것입니다."

WHO는 너무 이른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는 불필요한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회원국에 거듭 경고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

다.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종인 BA.2의 강력한 전염성과 일부 국가의 제한 조치 해제로 지난 달 7-13일 코로나바이러스 신규 확진자는 전 세계적으로 8% 급증했다.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명이 새롭게 감염됐으며, 43000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거브러이여수스 사무총장은 이러한 수치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국가마다 상황과 도전 과제가 크게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 거듭 말하지만 대유행은 종식되지 않았습니."

'기독교 문화사역'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다고요?

쉽고 재미있는
어른이들의 성경이야기
순삭성경

유튜브에서 검색하세요!



좋은책 읽어주는
그레이스타임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사역부 히스핑거는 기독교 콘텐츠제작, 기독교 굿즈제작 등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구매문의, 광고문의, 사역문의는 info@chpress.net 혹은 718-886-4400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실버들이여, 깨어나라!

26살에 폴란드에서 뉴욕으로 이민 왔던 해리 리버만은 76세에 은퇴를 했다. 우리 교회 옆 동네 그레이트넥에 사

는 해리는 할 일 없이 매일 체스로 시간을 보내곤 했었다. 어느 날 상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우두커니 홀로 맥을

놓고 앉아있을 때 이웃의 권유로 생애 처음으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무려 27년 간 그림을 그리면서 22번의 전시회를 미국 각지에서 열었다. 어린 시절 고향에서의 풍경들을 강렬한 색채와 꾸밈없는 화법으로 작품을 남겼는데 평론가들은 해리 리버만을 원시의 눈을 가진 미국의 사갈이라고 극찬하였다. 그의 작품이 국회를 비롯해서 각 캠퍼스에 남기고 103세 세상을 떠났다.

이제는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100수 시대가 왔다. 7, 80세에 은퇴해도 2, 30년의 긴 세월이 남아있다. 어떻게? 무얼 하며 살아야 하나? 이제라도 새롭게 시작하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미켈란젤로는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창조 성화를 그린 것이 90세였다고 한다. 베르디는 오

셀로라는 오페라를 작곡했을 때가 80세였고, 괴테가 파우스트를 완성한 것이 82세였다고 한다.

고령사회를 내다보고 시작한 뉴욕실버선교회가 이제 19번째 돌을 맞는다. 매주 월요일 밤에 선교의 기초부터 단기간의 훈련을 마친 그동안의 32번의 수료자들이 무려 800명을 넘었다. 봄 가을로 교육을 마치면 단기 선교지로 중남미로 가서 선교의 기쁨을 맛본 참가자들이 연인원 900명에 육박했다. 14명의 못 말리는 실버들이 지금 현재 지구촌 구석구석으로 흩어져 남은 노년 삶의 평생 선교지에 헌신하며 매진하고 있다.

멕시코 예가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나온 수익금으로 18년 동안 17개의 개척교회를 세운 K실버 선교사는 자랑스

러운 실버 선교사의 랜드마크이다. 그는 60대에 불의의 사고로 아내를 잃었던 절망과 체념을 극복하고 실버선교훈련을 받았다. 그는 번개를 맞고도 오히려 위계양을 치유 받은 기적도 체험했다. 이 실버 선교사는 금년에 인생 8학년을 맞았다. 그러나 여전히 멕시코 선교지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또 한 명의 위대한 실버 선교사가 있다. 케냐의 문요야 부족 마을에서 25년을 선교하던 중에 3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현지에 묻은 선교사, 그리고 아내 곁에 자신의 묘비를 미리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C실버 선교사는 금년에 7학년 8반이다.

‘그대 가슴에 뛰는 심장의 고동소리가 멈출 때까지는 그 어느 것도 늦지 않다’고 말했던 롱펠로우의 한 마디가 우리 모든 실버들의 귀전을 때렸으

면 좋겠다. 고대 사회에 아브라함은 75세에 이민 길에 나섰고, 모세는 80세에 엑서더스의 영웅이 되었으며, 여호수아는 80세에 가나안을 정복했고, 갈렘은 85세에도 거인이었던 아나 자손들과의 전쟁에 출전했던 장수였다.

맥다방에서 커피 한 잔으로 소일하는 실버들이여, 이제 깨어 일어나라. 시간은 붙잡는 자들의 황금이고 재산임을 기억하면서 힘차게 제3의 인생을 출발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코비드로 3년 문을 열지 못했던 뉴욕실버 선교학교가 이번 4월 25일 활짝 문을 연다. 뉴욕의 실버들이여, 이제 일어나라. 세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jkim47@gmail.com

푸/른/초/장

이지용 목사

(뉴욕갯세마네교회)



한국의 강선영씨가 쓴 책 “눈물의 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만큼 많이 운 사람이 있을까. 매일 밤마다 베개를 쥐어짜면 물이 똑똑 떨어질 만큼 많이 울었다. 그 후 스무 해를 넘기면서 깨달았다. 눈물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지독한 우울증으로 심장이 썩어 들어가는 느낌으로 살았던 그때, 죽음의 유혹을 이기게 해준 것이 눈물의 힘이었다는 것을. 지난시절 흘렸던 많은 눈물로 인해 나는 죽음을 부르는 우울증을 견디고 살아남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슬픔을 억눌러 놓지 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가슴 아픈 사람들을 위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삶을 살다 가신 예수님도 우셨는데, 연약하고 슬픔 많은 우리가 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쌓아두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독이 가득하게 됩니다. 지독한 분노가 더욱 짙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고, 나 때문에 가슴 아플 누군가를 위해 울고, 그리하면 눈물이 새로운 사랑을 불러일으켜 우리의 가슴을 환히 밝히게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요11:35)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126:5)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시84:6) 등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주 복잡한 가정, 문제가 많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소빔이라는 곳에 사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이고, 부인은 한나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는 할 수 없이 브닌나라는 후처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아이를 잘 낳았습니까.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

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감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상 1:4-5).

한나는 비록 아이가 없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줄 때에 한나에게는 감절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셔서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남편이 감절이나 사랑하는 것이 브닌나는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매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

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낳지 아니하니 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상황이 되면, 당연히 울 수밖에 없을 텐데,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당연한데, 엘가나는 한나를 정말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한나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해주어야 합니다.

한나의 슬픔과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한나처럼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올바른 선택

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실 뿐 아니라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

고만하고 건방진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역올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그 재판장을 날마다 찾아가서 재판장에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라고 부탁했습니다. 재판장이 얼마 동안은 과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과부가 너무 자주 찾아와서 졸라대니 재판장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재판장이었지만, 과부가 “내 원한을 풀어 주소서”라고 계속 졸라대니 귀찮아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눅 18:7-8).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것으로 응답해주시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별로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실 때에는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격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되면 더 잘되기 때문입니다. 안 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기 있게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호소할 때, 사람도 감동 받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주십니다.

눈물의 기도는 응답이 빠릅니다. 급한 일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응답됩니다.

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한나를 축복했습니다. 엘리는 늙었고, 몸이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축복을 받은 한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이 평안해졌다면, 이미 응답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생긴 증거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 받은 증거입니다. 그날 밤, 한나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아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생을 부끄럽게 마친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축복할 때 축복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축복 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의 마음에서부터 축복이 저절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한나가 단지 아들이 없어서 주님께 울부짖었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필자가 2020년 2월 중순 이스라엘 실로에 방문하여 앞에서 가이드하는 목사님을 말씀을 듣고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제사장의 두 아들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보고,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을 보고 기도하는 한나는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민족의 지도자를 구했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아들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간절히 구하고 원했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자마자 아낌 없이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황은 남편 엘가나가 둔한 사람이어서 한나의 마음만 아니라 민족의 위기를 실감하지 못함을 암시하고 있으며, 영적으로 가장 민감해야 할 엘리 제사장조차도 두 아들이 방자히 행하는 것을 방지해두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2Km 떨어진 실로는 이스라엘의 남부를 이어주는 중심도로 이기에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9면으로 계속)

한나의 눈물

사무엘상 1장1-11

다. 죽고 싶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 해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다 보면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을 성령께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쓰십니다. 성령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받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쓰십니다.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한두 번 짧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오래 기도했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가 간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고, 더 좋은

다. 시편 56편 8-9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에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눈물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물을 병에 담아놓고 눈물의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미 작정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에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눈물의 분량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해놓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

몸을 드리는 예배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가운데 듣는 것이 원칙이다. 말씀은 강좌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은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는 것이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몸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가장 편한 모습으로, 때로는 잠자리의 수면제로, 때로는 비상응급약처럼 도구적으로 이용하려해서는 말씀이 주는 좋은 유익을 놓치고 말 것이다.

예배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여 구별된 예배의 장소,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 사람들 가운데는 편안한 집안에서 예배를 나름의 취향(?)에 맞게 드리게 되면 하루에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사람들은 우선 집중해서 말씀을 듣지

배합니다"라고 자신의 예배관을 피력한다. 몸이 꼭 교회라는 빌딩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그저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면 되지 않는가?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다. 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영혼을 담은 물질계로서 육체를 움직여 예배가 되기 때문이다. 영혼이 육체와 분리된 채 스스로 예배할 수 없다. 몸을 움직여야만 진짜 영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 만일에 몸과 영이 분리되어 영으로만 예배가 가능하다면 죽은 자도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이상한 논리가 되고 말 것이다.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이다.

생각해보라. 예배 중에 늘 옆자리에 앉던 김 집사가 오늘 보이지를 않는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육은 없어도 그가 영으로 그 자리에 예배드려 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설

소들이 있다. 몸이 없는 예수를 믿겠다는 사상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인간의 몸이 되어 오셨고 몸으로 사셨고 실제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입으로만 하는 것은 가짜이다. 예배도 몸으로 드리는 것이다. 온전한 예배는 마음만 아니라 몸까지 드리는 것이다. 예배와 믿음은 몸을 드림으로 증명된다. 사람들은 가치 있게 여기는 곳에 몸을 움직여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다. 첫째는 시간이다. 둘째는 몸이 가는 곳이다. 셋째는 물질이 쓰이는 곳이다. 모두가 몸으로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의 열매인 것이다.

교회로 몸이 오는 것이 신앙가끔 그런 성도님들이 찾아

다. 은혜의 빛이 머무는 것을 본다. 천국가신 그분이 그림과 천국에서 만날 날을 더욱 사모하게 된다. 몸을 붙이고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예수의 향기를 진하게 남기기 때문이다.

결국 신앙생활 참 잘했구나! 하는 사람들, 참 인생을 잘 살았구나! 하는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교회를 섬기면서 그 사랑을 증명하고 몸을 드러내 보이는데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오늘날 최첨단 인터넷 시대를 지나면서, 이것이 많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교회가 무엇인가? 흔히 교회론 성경공부의 첫 번 질문일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 단 한 가지의 개념으로 단정하여 말한다. '세상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다. 이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미주크리스천신문" 애독자며 남가주장로교회를 출석하는 성도입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하면서 목사님이 설명하신 "신앙상담" 내용으로 기독교 교인으로서 많은 지침과 교훈이 됨을 항상 감사함을 전합니다. 제가 아래와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께 "신앙상담"을 합니다.

잠언 6:16-19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자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니라." "신앙상담" 내용 7가지입니다. 1. 교만한 "눈" 2. 거짓된 "혀" 3.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4.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5. 악으로 달려가는 "발" 6.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7.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 내용에 대해 신앙적 준칙과 신학적 교리에 대해 해설을 목사님께 신앙상담으로 문의합니다. -하지만 드림

7가지 보다 가장 큰 악은 우상숭배와 동성애

A: 질문에 감사합니다. 이 7가지는 대체로 대인관계에서의 7가지 죄인데 7가지 중에 5가지는 눈, 혀, 손, 마음, 발 등 사람의 지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잠언6:16-19절은 박윤선 박사의 주석에 의하면 이 죄목들은 마귀의 죄악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교만한 눈은 높은 눈으로 교만한 마귀가 하나님을 거역한 결정적인 행동이었고(딤후2:25-26, 유1:6) 교만한 먼저 눈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 뒤를 잇는 거짓말과 살인도 역시 마귀에게서 발원되었습니다(요8:44).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기에 거짓말을 미워하십니다. 셋째, 살인죄는 손이 범하는 죄입니다. 네 번째 모든 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오고 꾸며진 악은 고의적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발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는 9명을 어기는 것이요 일곱 번째는 마귀의 성질입니다.

그러나 이런 악들도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악은 2가지인데 우상숭배와 동성애입니다. 이것은 가증하다는 단어를 씁니다(레20:12,13 참조) 영어로는 Abomination으로서 혐오스럽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죄를 사랑과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받아들이니 성경에서 빛나간 타락한 음녀교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를 말하는데 첫째는 우상숭배의 죄, 둘째는 도덕적 타락, 도덕적 타락 중에 가장 심한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성 상실의 죄입니다. 짐승들도 동성애는 하지 않는데 인간이 행하는 이 죄는 인간성 상실의 죄입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교회, 세상과 삶의 축복 (9)

- 예배가운데 몸을 드리는 신앙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시간이 아까워서 한 번에 두세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행동연구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멀티태스킹"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두 배, 세 배의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예배를 그런 멀티태스킹의 한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적으로 예배라는 이름으로 실교방송을 듣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게 잘 기억되지 못하는 행태가 되고 말 것이다. 게다가 영적인 질병들이 이모저모 드러날 구조가 될 것이다.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기도 어려운데 계속해서 이런저런 말씀이 쏟아져 들어온다면 영안은 공급되는데 운동이 되지 않아 비만에 이르는, 마침내 질병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신앙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자신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정하신 방법이다. 참 예배는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정의를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한시간, 정한 장소에 자신이 몸을 가져가서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내용을 따라 드려야 하는 것이다.

자기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

배할 수 있을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그가 옆 빈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귀신이 와 있다는 말 밖에는 되지 않는다.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영과 육이 분리되고 끝이 난다. 그렇게 몸과 분리된 영혼이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몸이 없이 어떻게 영으로만 예배드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 몸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생각해야 한다. 힘써 몸을 움직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신앙은 몸으로 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기기에 인간으로서의 몸은 환상일 뿐이라는 이론을 가진 사상이 있다. 참 예배는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정의를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한시간, 정한 장소에 자신이 몸을 가져가서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내용을 따라 드려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이단사상의 뿌리에는 육체의 삶에 대해서 진정한 기록을 추구하지 않는 요

온다. 어떤 이유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목사님, 제가 이사를 가는데 몸은 멀리 가더라도 마음은 항상 여기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께 마음은 두고 갑니다." 그러면 재빨리 답을 한다. "집사님, 마음은 필요 없고 몸만 이곳에 있으면 됩니다." 왜 그런가? 몸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몸이 가니까 마음도 가는 것이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마음만 멀리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 주일에 골프를 치러 가야 하는데 핑계가 좋다. "목사님, 제가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골프장만 생각하고 목사님 설교는 안중에도 없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골프장 가서도 마음을 다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극 정성으로 사모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때도 단호하게 말한다. "마음은 필요 없습니다. 몸만 이곳에 있으면 됩니다." 몸이 오면 마음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몸이 교회에 오는 것이 진짜 예배이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손과 발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여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려야 한다. 그렇게 교회에 몸을 붙이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유한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며 큰 은혜이다. 그래서인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를 사랑하고 늘 교회에 붙어서 기도를 많이 하시던 분이 천국에 가시고 나면, 그 분이 늘 앉았던 그 자리는 바라보지만 해도 은혜가 된

개념은 맞는 말이지만, 구원론의 측면에서 전도를 위해 더욱 강조했던 부분이다. 그러다보니 교회를 그저 '구원받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이지, 장소와 시간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했던 것 같다.

주님은 무엇이라 하십니까?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밀어닥치고 비대면 영상예배가 활성화 되면서, 이 사상에 기초한 교회에 대한 관점들이 정말 엄청난 속도로 교회와 예배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아니어도,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팽배해간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했는데, 어디서나 예수님 믿는 성도 몇 명이 모여서 예배하면 그것이 교회이지, 교회가 별것인가? 라는 생각의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교회개혁도 아주 수월(?)해졌다. 아무 곳이나 장소를 정하고 사람들이 천목 모임하듯이 모여서 찬송하고 누군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설교가 거기서 더 나아가 굳이 땅의 장소가 필요할 이유가 무엇인가? 온라인 가상공간도 가능하지 않은가? 하면서 몸 없는 교회, 몸 없는 예배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

잘못된 종말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 집이다. 아무 곳에서나 한 번 해치우듯 드러지는 예배에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있을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은 알라딘의 마술램프에 나오는 알라딘의 마술램프에 나오는 심부름꾼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신앙이 좋다는 것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두세 사람이 모이고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얼마든지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한 관점을 통해 드러난 열매들이 무엇인가? '교회 예배당 무용론'으로 그 열매가 약하게 드러난다. 더 나아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듣게 되는 설교 말씀도 굳이 사람 목사가 앞에 없어도 인터넷으로 누군가를 선택해서라도 들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는 거침없는 불신앙의 소리들까지 쉽게 내어 뱉을 것이다.

그러한 사상을 가진 이들이

놓치는 것이 무엇인가?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것을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몇 십명, 몇 백명, 몇 천명이 모여 예배하는 이곳은 얼마나 더 구별되고 중요한 장소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더불어 과연 임의 장소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몇 명이 모여 인터넷 설교를 틀어놓고 그것으로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는 시대에 대해,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하는 질문이다.

과연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말씀을 나의 기호에 따른 선택을 따라 듣는다면 그것이 과연 나의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발의 등불과 인생행로에 합당한 빛이 될 수 있을까?

davidnjon@yahoo.com



목회서신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교회)

예수가 삶의 전부

아브라함과 욥의 인생이야기를 접하면서 깊은 고뇌와 묵상을 거듭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자 욥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지난날의 강단 메시지를 떠올리면서 회중들은 굉장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접하는 순간에 평상시에 고토록 좋아보이던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욥의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열 명의 자녀들을 모두 다 잃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나를? why me?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친 말을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아니 욥이 받았던 고난의 100분의 1정도

의 고난만 찾아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는 엄청난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생각해봅시다. “욥이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테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 하니라”(욥1:20-22). 요약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신앙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한다 찬송한다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저는 누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를 놓고 아는 사람들을 다 기억하며 헤아려 보았는데 저를 비롯하여 가능한 사람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백을 대할 때마다 욥처럼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지라고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려운 상황이 들이닥치면 언제 그런 생각을 했는가 싶을 정도로 형편없이 연약해지고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욥의 신앙을 본받자 라는 교훈적인 메시지만을 전한다면 설교자로서 굉장히 무책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상황 앞에서는 교훈적인 메시지들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욥과 같은 특별한 사람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일반 사람들은 아예 올라가지 못할 나무와 같은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욥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계시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사람은 계시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종교에 대한 기본정의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해주셨다는 것을 전제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때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하

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되어지기 전까지는 마치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갇혀 있었다 즉 믿음을 가질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충해주는 말씀 한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요10:31).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을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가 생각해봅시다. 누구든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사람마다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수준은 예수가 삶의 전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예수가 삶의 한 부분 정도만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누구나 다 예수를 삶의 전부로 삼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욥의 신앙고백이 우리의 신앙고백이 되게 하는 방법은 하나

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수준인 예수를 삶의 전부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무엇인가를 크게 활동을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발견하고 발견된 그 예수를 날마다 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체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한 깊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로 당신의 마음이 송두리 채 사로잡히게 되고 예수에 의해 완전히 지배당할 때 비로소 예수가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삶의 전부가 될 때 우리를 지배하는 예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도록 하는 믿음의 능력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고난은 절대 우리의 신앙경력이나 교회 직분이나 악착같은 인내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기록된 주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영으로 체험하는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갑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작년 48개 언어로 성경 첫 번역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1년 동안 48개의 언어로 성서가 처음 번역됐다. 멕시코에서 미얀마까지 48가지 종류의 언어 사용자 1100만명이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2038년까지 이 가운데 1200개 언어의 성서 번역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프로젝트 진행 중이다.

대한성서공회는 3일 세계성서공회연합회를 인용해 지난해에만 48개 언어 사용자 1100만명이 처음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3개 언어는 친구약이 포함된 성경전서로, 8개 언어는 신약성서, 37개 언어는 단편 성서로 번역됐다. 대한성서공회는 미얀마 소수 언어인 쿠알심(Khualsim)어의 경우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번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화상으로 성경 봉헌식(사진)이 열렸으며, 미얀마 군사 쿠데타 여파로 18개월이나 지연된 끝에 봉헌식이 개최됐다고 전했다.

번역자로 참여한 버나드 로이제 박사와 그의 아들들은 새로 출간된 성경이 집으로 배송되기 며칠 전 코로나로 사망했다고 미얀마성서공회는 밝혔다. 미얀마성서공회 총무 코이랍탕 박사는 “버나드 박사님은 자신의 삶으로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하나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대한성서공회는 지난 1월 기준 세계 7376개 언어 가운데 성경전서는 719개, 신약성서는 1593개, 단편 성서는 1212개의 언어로 번역됐다고 밝혔다. 소수 언어지만 아직 3852개의 언어가 번역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2038년까지 이 가운데 1200개 언어의 성서 번역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순위를 두지 않은 데 대해 실망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유엔은 북한이 인권 기록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나라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한국이 공동체안국에 불참한 것에 대해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HRW는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체안국으로 참여해달라고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HRW는 6개국 28개 비정부기구(NGO)와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이양희 전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등 개인 4인을 대표해 작성한 서한을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정의용 외교부·이인영 통일부 장관 앞으로 보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재임 중 마지막 공식 행위 중 하나로 결의안에 공동체안국으로 참여해 북한의 중대한 인권 문제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 1일 인권결의안 채택에는 동의했지만 공동체안국에선 빠졌다. 이로써 한국은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공동체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게 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당국자는 이어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간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제3의 성(X) 표기여권 발행

미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표기한 여권을 발행한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여권 신청서에 남성과 여성 이외 ‘제3의 성’(X)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여권 신청서에 남성과 여성 이외 ‘제3의 성’(X)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성별을 ‘X’로 표시한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한 후, 해당 조치 확대에 나선 것이다. 미지정 또는 다른 성별 정체성을 뜻하는 ‘X’는 난바이너리(자신을 여성 또는 남성으로 확고히 정체화하지 않은 사람) 또는 간성(생식기나 성 호르몬 등이 성별 이분법적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성별 구분에 불편을 느끼는 사

람을 위해 도입됐다.

미 국무부는 내년부터 여권 외 다른 서류에도 성별 ‘X’를 추가할 방침이다.

국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여권 신청 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왔다. 또 선택한 성이 다른 신분 증명서의 것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도록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보수 진영이 반발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 후보들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임신 중절이나 트랜스젠더 권리 등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면서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일부 주에서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클라호마와 애리조나 등 일부 주는 트랜스젠더 소녀들이 여성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플로리다주지사, HB 1557 법안 서명

론 드 산티스 미국 플로리다주지사가 지난달 28일 공립학교와 제3자 유치원부터 3학년 사이의 학생들과 ‘성적 지향과 정체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원 법안(HB 1557)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교육부가 자녀의 정신적·신체적·정서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며, 부모에게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는 금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대한 학교 교직원이나 제3자의 교실 수업은 유치원생에서 3학년까지 주정부 기준에 따른 연령이나 발달에 있어 부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규정한다.

HB 1557 법안은 미국의 일부 교육부가 어린 아이들이 자신을 다른 성별이나 새로운 이름으로 인식해도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발의됐다.

론 드 산티스 주지사는 이에 대해 “부모의 권리를 위한 승리라고 생각한다”면서 “학부모의 권리가 전국적으로 점점 더 공격받고 있지만, 플로리다는 부모의 권리와 자녀 교육에서 부모의 기본적인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부모는 학교에서 자녀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알 권리가 있으며, 5세 미만의 어린 자녀들에 성적 특징을 부여하기 위해 교실 수업을 사용하는 학교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

학교가 특정 상황에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조항은 동성애 지지자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샀다. 그들은 이 법안을 ‘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Don't Say Gay)’라고 명명하며, 주지사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플로리다 가족정책위원회(FFPC)는 “동성애 지지자들이 입법 내용에 대해 고의

적인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존 스탬퍼 FFPC 위원장은 성명에서 “학교들이 교육보다 세뇌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 이 법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법안이 아니다. 그것은 ‘내 아들을 딸로 만들지 말라’는 법안”이라고 했다.

또 “어린 초등학생들은 트랜스젠더주의나 부모가 해롭다고 생각하며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인간의 성에 대한 급진적인 관점을 접할 필요가 없다”가 강조했다.

마미에미 리온 카운티의 학부모인 제뉴얼리 리틀존은 성명에서 “자녀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에서 부모를 배제하는 것은, 부모의 의견과 권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이 법안이 동성 커플에 의해 양육된 자녀들이 가정의 상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해악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이미 터커 ACLU 임시 전무이사는 성명에서 이 법이 “교사와 학생의 LGBT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논의를 침묵시킨다는 점에 있어 위헌”이라며 “부모에 대한 토론 금지는 합법적인 교육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실제로 학생들에게 해롭다. 모든 청소년은 검열이나 차별 없는, 포괄적이고 정확한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플로리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에반 켄 의원은 새 법안에 대해 “고위 공직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의 인지도를 높여려는 정치적 방해에 불과하다”면서 “법안 후원자들과 주지사는 성소수자(LGBTQ) 공동체를 좋아하지 않으며, 의제를 발전시키고자 성소수자의 안전을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늦잠 덕분에...”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의 주정부 청사가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크게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숨진 가운데 고려인 후손인 비탈리 김 주지사가 늦잠을 자 출근이 늦었던 덕에 화를 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정부 건물에 공격받았음

3월 30일 더타임스는 전날 러시아군이 미콜라이우 주정부 청사를 공습해 최소 12명이 숨졌고 33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미콜라이우 주정부 청사는 우크라이나 최대의 항구 오데사에 연결된 전략적 요충지 미콜라이우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군의 주요 표적이었을 김 지사는 청사가 공격받을 당시 사무실에 없어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늦잠을 자 출근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그들(러시아군)은 빌딩의 절반을 파괴했고 내 사무실도 때렸 다”며 이 같이 전했다.

메이첸이 프린스턴신학교에서 보내 20년의 시간은 현대주의자들(Modernists, 혹은 자유주의)과 싸우면서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을 지켰고 든든히 세웠다.

그런데 사람들은 메이첸을 근본주의(fundamentalist)자라고 칭했지만 그러나 메이첸은 근본주의자라는 말을 좋아하지 아니했다. 근본주의라는 칭호는 자유주의 물결이 유럽에서 미국교회에 거세게 몰아칠 때에 1895년도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나이아가라(Niagara)에 모여 성경에서 근본교리를 중시하여 5가지를 선정하였는데, 그것은 1)성경의 무오설 2)예수의 처녀 탄생 3)예수의 대속적인 죽음 4)예수의 몸의 부활 5)예수의 육체적 재림이다.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를 부인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정통적 기독교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 1909년부터 'The Fundamentals: A Testimony to the Truth' 책을 출판하여 보급하였다.

그러나 메이첸은 자기의 정체성을 근본주의자로 칭함을 받기 싫어하였다. 그 이유들은 근본주의자들에게는 역사적인 안목이 부족하고(the absence of historical perspective), 학문적인 깊이가 부족하며, 기독교 교리와 신조의 다양성을 부인하며,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강조하며(특히 주조문제가 경건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함), 세상의 문화적인 변화를 무시하며(a lack of effort to transform culture), 종말론의 천년왕국을 너무 강조하여 보수 정통주의 교회들 사이의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문제는 메이첸에게 큰 문제는 아니었다. 메이첸 자신이 근본주의자가 아닌 이유를 신학적, 철학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일관된 정통적인 기독교는 개혁주의 신학이나 혹은 칼빈주의 신학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스스로를 '근본주의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내가 내 자신을 부르기를 선호하는 것은 '근본주의자'가 아니라 '칼빈주의자, 즉 '개혁주의자'이다"(Thoroughly consistent Christianity, to my mind, is found only in the Reformed or Calvinist Faith; and consistent Christianity, I think, is the Christianity easiest to defend. Hence I never call myself a "Fundamentalist"...what I prefer to call myself is not a "Fundamentalist" but a "Calvinist"- that is, an adherent of the Reformed Faith).

메이첸은 "어거스틴과 칼빈을 통해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프린스턴신학교의 찰스 하지와 벤자민 위필드에게 계승되어온 정통 칼빈주의 개혁신학이 곧 나의 신학"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메이첸은 자신을

근본주의자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Ned B. Stonehouse, J. Gresham Machen: A Biographical Memoir, p. 85).

메이첸이 자유주의(현대주의) 신학의 도전을 곧 정통 개혁주의신학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열심히 싸우면서 진리를 사수하면서 지은 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책이 1923년 출판된 '기독교와 자유주의'(Christianity and Liberalism, published in 1923)이다. 이 책에서 메이첸은 "자유주의는 기독교의 한 분야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별개의

말하며,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복음 진리를 현대 세계관과 타협함(compromising the gospel to the modern worldview)으로 생겨났다고 했다.

그렇게 함으로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의 초자연적 요소(the supernatural component of Christianity)를 제거하고, 성경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구속사건(the authority of the Scriptures and the redemptive account of Christ's work)을 포기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 신학이 아니다.

그리고 메이첸은 기독교의 역사성

독교는 역사적이며, 초자연주의이기 때문에 자연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는 자유주의는 기독교 신앙과는 뿌리가 다름을 강조한다.

메이첸은 신약 신학자이었던 그러나 신앙을 변호(the defense of the faith)하는데 전심을 다했다. 그의 일차적인 관심은 기독교 교리를 잘 설명하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나아가서 메이첸은 기독교 신앙을 위대한 사상 체계로 정리하는 일이었다. 이것은 마치 16세기 종교개혁과 비슷한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렇게 실행했다(David Wells edited, Reformed

말씀으로 초청한다.

메이첸은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면서 문법적-역사적 접근 방법(grammatico-historical approach)과 일반 상식(common sense)을 사용하여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경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며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였다.

특히 메이첸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성서비판학자인 빌헬름 헤르만(Wilhelm Herrmann) 교수를 만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주의 신학을 더욱 논리적으로 잘 비판할 수 있었다. 물론 그는 헤르만 교수를 존경했지만 그의 신학은 다르지 아니했다.

사실 당시에 문법-역사적인 방법(grammatico-historical approach)을 통해 성경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주로 자유주의신학의 성경해석방법이었지만 그러나 메이첸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신약성경의 역사적 사건임을 주장했다.

그리고 메이첸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비판하면서 토마스 리드의 "스코틀랜드의 보편철학"(Thomas Reid's Scottish "Common Sense Philosophy)을 이용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비판했다.

"스코틀랜드의 보편철학"을 사용하는 방법은 당시 프린스턴신학교에서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변증학의 용어로 말하면 증거주의 변증학(evidential apologetics)인데, 메이첸이 세운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반틸 교수에 의해 가르쳐지는 변증학은 증거주의가 아닌 전제주의 변증학이었다(presuppositional apologetics). 반틸 교수에 의해 확립되어진 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 변증학의 전통은 전제주의이며, 이것은 프린스턴 신학의 전통이 아니라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 신학의 전통을 따랐다.

프린스턴 신학자들(찰스 하지, 위필드)이 성경의 무오성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서 스코틀랜드 상식철학의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항은 프린스턴 신학자들이 스코틀랜드 상식철학의 영향 때문에 성경무오설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과 사상을 설명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상식철학을 부분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므로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 교수(예일대학), 시드니 알스트롬(Sydney Ahlstrom)이 지적한 구 프린스턴 신학자들은 "스코틀랜드 상식철학"의 영향으로 신학주의를 낳았고, 그 결과 구 프린스턴의 신학자들은 정통적인 개혁주의 전통을 변질시키고 말았다고 주장한 것은 잘못이다(Sydney Ahlstrom, 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9면으로 계속)



미국 개혁주의신학의 역사 (7)

그레이삼 메이첸(Gresham Machen)(하)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종교"라고 했다. 자유주의와 기독교는 그 뿌리가 다른 두개의 별개의 종교라고 했다("not two varieties of the same religion, but two distinct religions proceeding from altogether separate roots).

을 매우 강조했다. 그의 저서 '역사와 신앙'(History and Faith)에서 그는 성경의 모든 사건은 역사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경은 일어난 일은 역사에 대한 기록이며,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다"(Machen, History and

Theology in America, p.111). 메이첸이 정통적인 개혁주의 신앙을 변호하는 일의 기초는 철저하게 성경이었다. 그는 신구약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임을 확신하는 믿음의 전제하에 기독교 신앙의 변증

근본주의자가 아닌 개혁주의자 자처, 자유주의는 별개 종교로 선언 기독교 역사성 강조, 증거주의 변증학,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믿어 가

메이첸은 당시 크게 번성하고 있던 자유주의(현대주의)신학의 뿌리는 자연주의(naturalism)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책 1장에서 자연주의란 "기독교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개입했음을 부인"(as opposed to "the entrance of the creative power of God")하는 입장이라고 정의 내린다. 그리고 위대한 구속의 종교와 자연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신학은 전혀 다른 형태의 종교라는 그 유명한 선언을 한다.

Faith, p. 338). 곧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구속사에서 전개되는 역사는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사건들이다.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도 역사성을 지닌다. 여기에서 자유주의와 싸우면서 기독교의 초자연주의(supernaturalism)를 강조한다. 신약의 모든 기적들은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심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위한 증거들이다.

메이첸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삶, 죽음, 그리고 부활은 모두 역사적인 사건임을 강조한다. 메이첸은 기

시도했다.

메이첸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있다. "모든 것이 변하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메이첸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굳게 믿었다. 그는 "세상은 타락하며 가시적인 교회는 상당한 정도로 배도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확고하게 선다"는, 메이첸의 신앙의 변증의 기초는 여기에 있다. 따라서 그는 강의, 설교 및 라디오연설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라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 679-7576, Fax: (702) 929-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다민족 교회</p> <p>담임목사: 홍귀표</p> <p>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연구: 오후 8:00 다민족찬양: 매주(목)오후 4:00-7:00</p> <p>Tel: (773) 802-1112, estrose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애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종운</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 오후 8:00</p> <p>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p>	<p>벨렐교회</p> <p>담임목사: 백신중</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45 탄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p> <p>담임목사: 장성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 오후 8:00 유치, 유년, 종교대학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linton, MA 01748</p>
<p>새생명안인교회</p> <p>담임목사: 정성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후 7:00(목) 새벽 예배: 오전 6:00(화/목/토) 구약 예배: 구약대로 한국 학교: 오전 10:20(주일)</p> <p>Tel: (850) 423-9700, Cell: (213) 703-996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p>	<p>안디옥교회</p> <p>담임목사: 강준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702) 749-9929, www.om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p>	<p>일신사제자들교회</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 820-9049, www.jesu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열린문교회</p> <p>담임목사: 유재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807) 344-6446, Fax: (807) 344-3182 8200 Briarwood St. Ancl., AK 99518</p>	<p>영생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백운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 542-0288, Fax: (215) 542-8037 706 Wilmer Rd. Hosham, PA 19044</p>	<p>킬린은누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3:00 토요일예배: 오전 5:30(화-금)</p> <p>Tel: (254) 835-1842(H), (254) 6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p> <p>Tel: (703) 8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장호</p> <p>주일 영양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9시 45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새벽 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253) 536-6675, www.tbcomac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57)

존 오웬(John Owen, 1616-1683)의 “죄 죽임에 관하여, On Mortification of Sin” (2)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린제일교회)



1장 육체적 행위를 죽이는 일

이 글의 토대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나”로서 이 말 씀에 함축된 위대한 복음의 진리와 신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로마서 8장 서두(1-3)에서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의 교리와 그 은혜에 참여한 자들의 축복을 재요약 해서 말한 후, 그것을 더욱 확실 명하면서 성도들이 갖는 거룩과 위로에 초점을 맞춘다.

거룩을 위한 바른 동기들을 주장할 때, 바울은 13절에서 죄의 반대편 관점에서 그 중 하나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가 육신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사했다. 이들은 확실히 그 의무를 충족시켜 약속을 성취하는 자들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조건으로 제시된 의무와 약속 사이에는 논리적 응집력이 있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의무와 ‘산다’는 약속 사이에 확실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 약속을 먹으면, 병이 낫게 될 것이다’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죄를 죽이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아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6:23)에서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의 관계는 수단과 목적의 관계이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약속한 자

서 자신이 해방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아무리 훌륭한 성도 일지라도, 그는 마음속에 거하는 죄의 힘을 극복하기 위해 항상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영으로써”-이 의무 수행을 위한 원천

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원천은 성령이다. 이 영은 11절에 언급한 ‘그리스도의 영’, 즉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9절)이다. 이 영을 통해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다(11절). 또한 이 영은 ‘양자의 영’(15절)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는 영(26절)이다.

성령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죄를 죽이는 것은 헛된 일이다. 다른

잘라내야 한다. 바울은 그 원천들을 육신의 정욕이 지향하는 행동들로 묘사했다. 정욕은 인간을 속이고 거짓된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게 죄를 짓도록 만든다.

바울은 로마서 7장과 8장의 서두에서 죄의 정욕이 죄의 행동의 토대이자 원리라고 지적한다. ‘몸의 행실’은 ‘육신의 생각’(롬8:6)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 행실은 육체의 열매와 행동의 원천이 되는 ‘육체의 정과 욕심’(갈5:24)과 동일한 의미이다. 이 몸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0절은 그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고 말한다.

셋째, ‘죽인다’는 비유적 표현은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죽임의 상태로 놓는다는 뜻을 함축한다. 그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 자격조건과 약속, 의무수행의 원천과 수단은 성령

되” 여기서 ‘육신대로 살면’이라는 말과 ‘죽는다’라는 말은 확실히 성도가 추구해서는 안 되는 삶을 가리킨다.

이 책의 기초가 되는 13절 후반부를 분석하면, 첫째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 먼저 말한다. 즉,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다. 그리고 둘째로 그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 조건을 언급한다(“너희들”). 셋째로 그 의무를 수행할 때 어떤 약속이 따르는지를 보여준다. “그렇게 되면 산다” 약속이다. 넷째로 이 의무 수행의 원천과 수단은 성령이라고 말한다.

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단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수단은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결국 그것은 자유로운 약속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중속물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은사를 얻는 것이 사람의 행동에 달려있다면 그 상관관계는 일관적이지 못하고 불확실한 것이다. “죄를 죽이는 것과 영생 사이에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연관관계가 있다.” 누구든지 이 수단을 사용한다면 그 목적을 선물로 얻게 된다. 의무에는 이런 동기와 효력이 있다.

2) “너희가 수행해야 할 당사자

그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당사자들로서 성도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로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6절)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살려진’(10-11절) 자들이다. 이 의무를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억지로 수행한다면 그 결과는 이 세상에 만연한 미신과 자기 의만 땅을 것이다.

즉, 복음을 외면하고 경건하려는 사람들의 인간적 업적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다(롬10:3-4, 요15:5). 나의 눈점은 죄의 지배에

모든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 의무를 성취할 수 있다. 다른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스스로 고안한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죄를 죽이고자 하는 노력은 세상의 모든 거짓된 종교의 본질이며 그것은 결국 자기 의이다.

4) “몸의 행실을 죽이는”-몸과 행동과 죄를 죽인다의 것의 의미

첫째, ‘몸’은 상반절에 있는 ‘육신’이라는 말과 동의어로서 우리의 타락한 품성과 관해서 우리 속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죄소이며 도구를 뜻한다. 몸의 자체는 불의를 심기는 종들이라고 할 수 있다(6:19). 결국 몸이 하는 것은 타락한 육체 또는 정욕으로서 우리 속에 거하는 죄의 속성이다. 몸은 ‘옛사람’과 ‘죄의 몸’(6:6)과 같은 뜻이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전인적 모습으로 정욕과 병적인 감정이 거하는 곳이다.

둘째, ‘몸의 행실’은 의외인 행동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현저하다고 말하는 ‘육체의 일’을 가리킨다.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 있으니” 육체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 행실의 원인부터

힘과 활력의 원리들을 제거해서 더 이상 행동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바울은 우리 속에 거하는 죄를 살아 있는 인격체인 옛 사람으로 비유한다. 그 옛 사람은 자신만의 기능, 자질, 지혜, 기술, 통찰력, 힘을 가지고 있다.

바울에 의하면 우리는 이 옛 사람을 죽여서 즉 죽음의 상태로 놓아서,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옛 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극복한 모범적인 예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롬6:6), 우리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지적한다(롬6:8). 그 결과 비록 우리 마음속에 부활에 반대하는 파괴적인 소욕들이 여전히 공존하지만(갈5:17), 성도인 우리는 이제 주님의 부활에 처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롬6:3-5).

이 부활의 완성은 점진적으로 우리의 일생을 통해 성취되어간다. 로마서 8장 13절은 우리의 썩어질 몸에 거하는 죄들을 죽여서 더 이상 육신의 행실을 하지 못하도록 그 힘과 능력을 제거하는 일이 성도들의 의무임을 보여주고 있다.

younsuklee@hotmail.com

사·모·칼·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십여 년전 남편이 부사역자로 있을 때의 일이다. 교회에 경찰이 오고 예배당은 어수선하며 고성이가 오는 어느 주일 오후였다. 집으로 가기 위해 차를 타고 가는데 눈물이 주르륱 흘러내렸다. ‘하나님 사람들이 무서워요...저 앞으로 어떻게 이 길을 가지요?’ 이 독백은 따갑게 내리쬐는 캘리포니아 아스팔트를 뿌연게 만들어 버리곤 했다. 이런 교회의 적나라한 실상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도 약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며 부사역자 아내로서 깊은 절망이 뿔어져 나왔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언행의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나의 삶의 모본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

어느 날 교회의 한 자매가 “신앙 생활하는 것이 왜 이리 힘들어요?”라고 푸념하듯 내뱉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이 자매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는데 말씀을 읽으며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든다는 말이었다. 이 자매의 말이 옳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본성이 이끄는 대로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조정해가야 하는 분명이 쉽지 않다. 나를 극복해가야 하는 일이지가 말이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보겠다. 교회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밋고 싫어질 때 자아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 감정대로 행동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언행을 하지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말씀 중심적인 삶의 행동을 낳는다. 곧 대제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을 떠올리며 이 상황에 대한 바른 언행을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삶의 태도를 보이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아를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지속적인 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모든 성도는 반드시 이 훈련을 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엄중한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자아가 이끄는 대로가 아닌 말씀 중심적인 삶으로 선행하고 거룩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고후5:10. 쉬운성경).

yanghur@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현대대학원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891, www.thankingvingschurch.com 65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 8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남주주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 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영양예배: 오후 2:00(대학부)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주일예배: 오후 2:30 Tel: (310) 719-2244, www.dhk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서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 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 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양)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장년) 4부: 오전 1:45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Tel: (213) 381-2202, www.mjpac.org 170 Bir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Tel: (310) 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 90717</p>	<p>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 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베델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오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 선일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 854-4010 / belhel@bhc.org / www.bh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235-78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윤송 목사 (LA복음연합교회와함께함동종사) 성서사역: (월-금) 오전 10:45(오후 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평신도 여성리더 3. 약: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딸사역 4. 네트워크 사역 www.episfamily.org Tel: (213) 700-98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온라인새벽기도: 3:55일 24시간 온로 Tel: (714) 446-6200, www.gracemc.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장년)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령회: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5</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 749-4500, www.go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목요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14) 646-9259 www.soci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주요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찬양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기도: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c.org 1950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수요일예배: 오전 9:30 오전 9:30 오전 7:00 Tel: (213) 600-2948, dcbk.kim@cbi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net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net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net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그 날이 오기 전에”

사람에겐 누구나 그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위하여 사람들은 준비하고 노력을 합니다.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써서 그 날을 기약합니다. 그날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임산부는 해산의 그날을 위하여 태교를 하고 건강을 관리하며 심신을 평안하게 유지하려 합니다. 그 해산의 그날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가지게 됩니다. 이런 예를 들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수많은 그날들을 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 결정적인 그 날을 직시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경험하

는 그 날들 중에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그날은 어떤 의미에서 끝의 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결산의 그날을 생각지 아니한 종과 끝을 의식하고 그날을 준비한 종의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계할 세”(마25:19). 그 끝 날의 그날을 인식하지 못하고 일을 게을리 한 종은 영벌에 처하고 그날을 예측하여 그날을 준비한 종들은 주인의 잔치에 들어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날을 헤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이나 관계와 관계없이 사람은 누구나 그 끝 날의 그날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끝 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으며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전3:1-2)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인생의 실재입니다. 그 끝이란 실재를 인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늘 끝을 의식하고 산 듯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딤후4:7). 사도 바울은 삼중천을 경험한 놀라운 영적세계를 체험을 한 분으로서 인간의 실존과 운명을 잘 이해하였습니다. 인생은 떠나가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날은 언제인가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영생하는 천국으로 떠나가는 그 날일 것입니다. 그 날을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목회를 하시던 충성된 한 목사님의 소천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며 강한 심적 충격을 받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날은 한편의 설교로 우리에게 전해 집니다. “아 저렇게 그 날을 맞이하게 되는구나” 라는 메시지가 말입니다. 너무나 귀하시고 충성된 큰 종이셨는데 그분의 맞이하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날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그날이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그날을 인식하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목회서신을 쓰실 때 오늘 우리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딤후 4:21). 이 표현은 바울의 그날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오라는 바울의 절박한 호소인 듯 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 겨울이 그의 그날의 시간이 될 것을 예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 입장을 피력하면서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곧 그날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 오라고 말씀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점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겨울 곧 그날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

까요? 그날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마25:30). 우리가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없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마도 각자가 각자의 처지를 따라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엄히 명한 말씀을 생각하면 몇 가지가 생각이 나게 됩니다. 우선 내게 허락하신 소중한 이웃과 믿음의 형제자매 특히 주님의 일꾼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함께 행복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을 그릇된 일로 낭비하지 말고 서로가 행복의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라”(전5:18). 그리고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딤후4:5)고 명령한

니다. 전도인의 일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 지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인의 일을 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전도인의 직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 받아쓰는 구원받은 충성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구원을 확보함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위치를 넘어 면류관 쓰는 자리로 나아가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4:8). 여기서 바울은 ‘그날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시어 후회 없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그날의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cyd777@hotmail.com

미주 한인교단 정기총회 일정발표

미주 한인교단들의 2022년 총회가 4월 18일 미주성결교회를 시작으로 6월 남침례회 한인총회까지 일제히 개최된다. 다음은 총회일정이다.

Table with 3 columns: 일시 (Date), 교단 (Church), 장소 (Venue). Rows include 4월18일-20일 (미주성결교회), 4월25일-27일 (C&MA한인총회), 4월25일-28일 (연합감리교 한인교회총회), 4월26일-28일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총회), 5월 10-12일 (해외한인장로회(KPCA)), 5월 10-13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6월 13-16일 (미주남침례회 한인총회).

푸른초상

(4면에서 계속)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로를 떠나셨을 때 실로의 변영도 빛이 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가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던 것은 무엇보다 그 가운데 성막이 진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막의 지성소에 모신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주전 1102년, 아벳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대신에 하나님을 끌고 나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지성소에 안치된 언약궤를 제멋대로 전횡대로 가지고 나간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다’라는 신앙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마치 사나운 짐승이나 무서운 무기를 들고 나가듯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부리고자했습니다. 이 무서운 범죄는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참극으로 이어졌습니다(삼상4:3-18). 그 시대를 반영하는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의 ‘이갓’입니다(삼상4:21). 언약궤가 없는 실로의 성막은 그 구실을 상실했고 성막이 떠나버린 실로는 서서히 잊혀진 변방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로의 성막이 떠나버렸듯이 영원한 줄 알았던 예루살렘의 성전 역시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불타 무너져버렸습니다.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듯이 예루살렘 성전의 언약궤는 바벨론에

빼앗겨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로를 통한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을 때 예루살렘도 실로의 뒤를 따라가고 만 것입니다. 구약시대 실로의 쇠퇴는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같은 말씀을 모셨다며, 자만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성도의 범죄를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참 실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안식과 평화를 완성시키신 사건은 우리의 언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도 참 실로를 선물해주실 것을 대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언제인가요? 오늘 한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nygo4tgc@yahoo.com

증축이 합리주의에 근거하였다 할 수 없고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며, 칼빈주의에 입각한 변증학이라고 할 수 있다. 메이천이 프린스턴신학을 그토록 사랑하면서 프린스턴신학교를 떠나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세워 (구)프린스턴신학, 정통적인 개혁주의신학을 계승하여 오늘까지 오고 있다. 지금도 메이천 교수가 가르친 칼빈주의 정통 개혁주의 신학은 전세계에서 힘있게 전해지고 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신학적인 기초를 놓은 박형룡 교수, 박윤선 교수도 미국에 유학하면서 메이천 교수로부터 개혁주의신학을 가르침을 받아 한국교회에서 한평생 칼빈주의 정통 개혁주의신학을 가르쳤다. 다음 회에는 개혁주의 신학자 코넬리우스 반틸(Cornelius Van Til)에 대해 생각하겠다. KHL0206@gmail.com

미국개혁주의신학...

(7면에서 계속)

메이천 교수가 단지 역사적-합리적인 논증으로만 불신자들을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다고 믿지 아니하였다. 메이천은 사람이 중생함을 받아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주장했다. 인간의 지성은 죄로 말미암아(noetic effect of sin) 복음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메이천의 변

나무선교회 선교방송 시작

뉴욕 나무선교회(JTMA, Jesus Tree Mission Associate)가 AM1660을 통해 지난 3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3시 선교방송을 하고 있다. 대표 이경세 목사와 이사 노성보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선교사들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땅끝에서” 코너, 유승래 목사와 임지윤 목사가 진행하는 상담과 기도와 치유가 있는 “Pray and Healing” 코너가 방송된다. 재방송은 주일 오전 9시30분에 “땅끝에서” 코너, 오후 1시30분에 “Pray and Healing” 코너가 진행된다. ▲연락처: (917)440-9442 이경세 목사 (유원정 기자)



기쁜우리교회 창립5주년 및 성전이전 감사예배에서 관계자들이 케익커팅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되자

기쁜우리교회 설립5주년 및 성전이전 감사예배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설립 5주년 기념 및 성전이전 감사예배가 3월 오후 12시30분에 열렸다. 김경진 목사는 “지난 2020년 설립 3주년 예배를 감격스럽게 드렸다. 하지만 그 이후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체제로 들어갔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설립 5주년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릴 수 있게 됐으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감격스러웠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재학 목사 인도로 열린 감사예배는 김원국 장로가 기도했으며 찬양대 찬양 후 김경진 목사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엡1:20-2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경진 목사는 “교회는 예를 레시야로 믿는 자의 모임이다. 오이코스, 가족이라고도 한다.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라며 “교

회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했다. 김 목사는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머리가 되신 예수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내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한다. 창립 5주년을 맞아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몸 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전해져 사람들과 이웃들이 배고프고 굶주린 영혼들이 죽음에서 해방되기 원하고 불안 공포 질망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리스도의 온전함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진 은퇴식에서는 정지일 장로, 김경진 장로, 김세기 집사, 김남훈 권사, 박옥자 권사, 전경희 권사, 송승하 권사가 은퇴했다. 스티브 웨이비 글렌데일장로교회 담임목사가 축사했으며 케이 크 커팅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송명명 목사(미주성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한 이들이 기념촬영 했다.

정요한 목사, 성역 40주년 및 한국대통령 표창 감사예배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평화와 통일에 기여

정요한 목사가 성역 40주년 및 목사임직 35주년,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을 기념하여 지난 6일 제이제이그랜드호텔에서 감사예배를 드렸다. 임규서목사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평통 본국상임위원 장병우 장로 기도, 한기부 미주총회장 지용덕목사(미주양곡교회 담임)의 설교로 진행됐다. 정요한 목사는 민주평통 LA협의회에서 종교분과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신년초찬기도회를 비롯한 공공외교와 평화통일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평화와 통일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이성자 기자)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동부교계 게시판

종말론 세미나

정진욱 목사(웨스트사이드연합감리교회)의 제 6차 종말론 세미나가 4월 12일(화) 오전 10시-12시 '이 시대의 징조' △오 후 1-3시 '종말의 시나리오' 주제로 개최된다. 장소는 뉴저지 주님의은혜교회(담임 최준호 목사). 목사, 사모, 전도사를 대상으로 열리며 회비는 없다.

▲문의: (908)265-2766

더라이프교회 카페에서 예배

더라이프교회(담임 유태웅 목사)가 노던 블라바드 216가 "Waffle N Sip Coffe" 카페(대표 아브라함 김)에서 예배를 드린다. 커피가 흐르는 향기나는 카페 예배시간은 매주일 오전 11시.

▲문의: (646)258-4161

14개 지역/지역장 발표 및 협력당부 뉴욕교협 2022 부활절새벽연합 등 준비기도회

뉴욕교협이 주최한 2022 부활절 새벽연합 준비기도회, 우크라이나 전쟁종식 및 5월 뉴욕선교대회를 위한 기도회가 4월 1일 오전 10시30분 하크네시아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열렸다.

48회기 교협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인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는 부활절인 4월 17일 새벽 14개 지역에서 열린다고 준비위원장 전광성 목사가 밝혔다.

부활절새벽연합예배가 드러지는 14개 지역 및 지역장은 △코로나/우드사이드 이재봉 목사 △엘머스트/서니사이드 김바나바 목사 △플러싱1 정관호 목사 △플러싱2 김경열 목사 △플러싱3 박성원 목사 △프레쉬메도우 전광성 목사 △베이사이드 이창종 목사 △리틀넥 이상훈 목사 △웨체스터 허경열 목사 △스테이트아일랜드 이기웅 목사 △맨하탄 주효식 목사 △브루클린 이윤석 목사 △롱아일랜드2 김원재 목사.

1부 예배는 임영건 목사(총무) 인도로 경배와찬양 김정길 목사 등 4인, 기도 김원재 목사(협동총무), 성경봉독 이광모 장로(회계), 설교 이만호 목사(증경회장), 합심통성기도, 봉헌기도 손순대 장로(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장), 광고 김정길 목사(서기), 축도 김원기 목사(증경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증경회장 이만호 목사는 "절망을 극복하라"(시42:5-11)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절망을 극복하고 소망으로 바꾸는 성경적인 4가지 비결은 1)소망의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바라보라 2)주님(말씀)을 기억하고 실행하라 3)성령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모시라 4)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위해 진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욕교협 2022 부활절새벽연합 준비기도회에서 이만호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요하다"고 말했다.

합심통성기도는 △부활절을 통해 각 교회마다 믿음의 부활을 위해/전광성 목사 △5월 뉴욕선교대회를 통해 각 대륙의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김경열 목사(선교대회 준비위 총무) △우크라이나 전쟁종식과 영적 부흥을 위해/박준열 목사(원주민선교분과) △대한민국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남북통일이 일어나도록/박성원 목사(노숙자분과) △미국에 다시 성령의 불이 불어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데 쓰임을 받도록/하정민 목사(수석협동총무) △7월 할렐루야복음전도대회에 큰 은혜가 임하도록/박마이클 목사(미사바회 개운동위원장) △뉴욕교계에 회개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도록/이창종 목사(교회협력분과) 제목으로 진행됐다.

2부 회의 및 경과보고는 회장 김희복 목사 사회로 개회기도 이준성 목사(부회장), 회장 인사, 부활절새벽연합예배 경과보고 준비위원장 전광성 목사, 뉴욕선교대회 경과보고 준비위원장 이준성 목사, 준비위 총무 김경열 목사, 사업경과보고 임영건 목사(총무), 폐회 및 오찬기도 황경일 목사(증경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뉴욕교협 선교대회

뉴욕교협은 1일 기도회에서 5월 26일부터 4일간 열리는 뉴욕선교대회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대회는 5월 26일(목)부터 4일간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에서 열린다. 주강사는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김희복 목사는 "세계각지에 선교하는 15여 명의 선교사

를 뉴욕으로 초청한다. 항공비와 숙식, 간단한 관광과 선교후원비도 지원한다. 집회는 저녁을 위해/전광성 목사 △5월 뉴욕선교대회를 통해 각 대륙의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김경열 목사(선교대회 준비위 총무) △우크라이나 전쟁종식과 영적 부흥을 위해/박준열 목사(원주민선교분과) △대한민국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남북통일이 일어나도록/박성원 목사(노숙자분과) △미국에 다시 성령의 불이 불어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데 쓰임을 받도록/하정민 목사(수석협동총무) △7월 할렐루야복음전도대회에 큰 은혜가 임하도록/박마이클 목사(미사바회 개운동위원장) △뉴욕교계에 회개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도록/이창종 목사(교회협력분과) 제목으로 진행됐다.

김희복 회장은 선교사들의 숙박은 뉴욕장로교회에서 6명,

교회 임원들이 한 명씩, 그리고 기타 장소를 찾고 있다며 뉴저지와 필라 교협에도 선교대회 공동주최를 제안했다.

준비위원장 이준성 목사는 "뉴욕교계에서 50여년 만에 교협이 처음으로 선교대회를 연다"며 협력을 부탁했다. 이 목사는 "선교대회 비용은 최소 7만 달러를 예상하며, 협력위원들을 세워 교회와 단체들의 협조를 구하고 선교사 후원 골프대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3월 월례모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10월 과테말라 방문·12월초 후원자의 밤 개최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3월 월례모임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3월 월례모임이 30일 뉴욕 기쁨과영광교회(공동담임 전희수 권택덕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뉴욕선교사의 집(대표 최문섭 장로)과 디나눔하우스(대표 박성원 목사)에 각각 1천 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 지난달 새 회장으로 선임된 박이스라엘 목사는 "지난 16년 동안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가 빵과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해 온 것에 하나님과 임원들께 감사한다"며 "말은 회기 동안 정직과 순수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NGO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후원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단체가 되겠다"고 인사했다.

또 이번 회기 사역으로 오는 △10월 과테말라(장경순 박윤정 선교사) 선교지 방문 △12월초 후원자의 밤 개최 등을 발표하고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의했다.

1부 예배는 육민호 목사 인도로 기도 한필상 목사, 말씀 박이스라엘 목사, 합심기도, 축도 한준희 목사 순서로 진행했다.

박이스라엘 목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마 25:40-4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예수재림 후 심판대 앞에서의 일을 말씀하신 것인데, 심판기준은 사랑"이라며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 이웃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 사랑을 실천하라 둘째, 긍휼과 관심을 가지라 셋째, 섬김과 희생을 하라"고 말하고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전했다.

이어 육민호 목사가 합심기도(본 기구 회장과 회원들을 위해, 결연아동과 후원자들을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를 인도하고 지난 2월 과테말라 방문 당시 장경순 선교사와의 만남을 소개하고 사역보고(주소원 교회)를 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콜롬비아, 페루,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르디보라 5개국의 아동결연을 통해 빵과 복음을 전하고 있다. 아동 1명당 한 달 후원비는 30달러다.

▲후원문의: (917)620-8964 박진하 사무총장, breadngospel@gmail.com

(유원정 기자)



"선교적교회로 가는 길"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선교적교회로 가는 길" 세미나

뉴욕장로교회, 지역교계에 오픈...강사 송민호 목사

뉴욕장로교회가 송민호 목사(토론토영락교회)를 강사로 "선교적교회로 가는 길" 부흥 집회를 4월 1일부터 나흘간 개최했다.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는 둘째 날인 2일 오전 10시 뉴욕교협과 지역교회를 위해 세미나를 오픈했다.

세미나는 김학진 목사 사회로 뉴욕교협 부회장 이준성 목사 기도 후 시작했다. 김학진 목사는 "송민호 목사가 필리핀 선교사 출신으로 청빙 받아 토론토영락교회에서 18년째 사역하고 있으며, 리전트칼리지(M.Div, Th.M), 트리니티신학교(선교학, Ph.D)를 졸업하고 '선교적교회로 가는 길',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저서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저자 사인한 '선교적교회로 가는 길' 구입에는 뉴욕교협 선교대회 후원금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강사 송민호 목사는 자신의 저서와 프린트물, 영상 등을 통해 강의를 이어갔으며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송 목사는 선교적교회(미서

널쳐치)는 미 주류교회가 쇠락해가는 현상 가운데 나온 뮤브먼트(운동)으로 이민교회에 접목시키려 했다고 설명하고 토론토영락교회를 사례로 소개했다. 또 선교적교회를 시도하고 있는 세이비어교회를 소개하고 주빌리주택사역을 한 골든 커즈비 목사를 소개했다.

송 목사는 시대적 요청으로 에디 김스의 5가지 메가트렌드 외에 △펜데믹을 통해 체험한 글로벌 관계성 △정보시대를 넘어 시작된 통전적 AI시대 △위기에 빠진 환경문제와 신에너지 개발 문제 등 3개를 추가했다. 또 이 운동의 시작인 레슬리 뉴비긴, 세계복음화를 재정의한 로잔안약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송민호 목사는 "'선교적교회'란 온 성도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구속적 삶을 살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믿음을 공동체"라고 정의하며 펜데믹 이후 떨어진 동력을 다시 일으켜 세워 앞으로 은퇴(3년반) 전까지 끌어올리는 게 자신의 사역목표라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제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__년 __월 __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남가주 교계 부활절연합예배 드린다

교계 및 동포단체 연합, 준비위원장 신승훈 목사

그동안 남가주교계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져 왔으나 2022년 부활절을 맞아 교계와 단체들이 다시 함께 화합의 손을 잡고 '부활절연합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는 반갑고 기쁜 소식이다.

'남가주 교계연합 부활절새벽예배 준비위원회'(가칭, 상임대표회장 신승훈 목사)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주님의영광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정요한 목사(민주평통 LA 종교분과위원장)의 인도로 드린 감사예배는 박효우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증경회장) 기도, 한기형 목사(남가주교회 증경회장) 설교, 정해진 목사(남가주교회 증경회장) 축도로 진행됐다.

한기형 목사는 창세기 50:15-21을 본문으로 "형제들이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다투고 분쟁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겠



'남가주교계 부활절연합예배'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는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오늘 부활절연합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 돼 하나님 안에서 동역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 되자"고 말했다.

이어 경과보고의 시간을 통해 신승훈 목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단체장들이 큰

결단을 내려 2022년 남가주교계 부활절연합 새벽예배를 드리게 돼 기쁘다. 교계 모든 영적지도자들의 단합된 섬김의 모습을 보일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며 교계와 동포사회가 하나 될 수 있으리라 믿어 교협과 목사회가 같은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준비위원장 지용덕 목사(미주양곡교회)는 "기독교 최대의 축제일인 부활절 연합예배는 한국교회 및 남가주 교계의 전통이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사태와 교계가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잠정 중단됐다. 다시 남가주 교계연합으로 부활절 새벽예배를 드리기로 의견을



우크라이나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누가 우크라이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를 위한 특별기도회, 설교 한기홍 목사

우크라이나를 위한 특별기도회가 4월 1일 오후 7시3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개최됐다.

은혜한인교회 찬양팀의 찬양 인도와 심상은 목사(OC교회회장)인도로 시작된 기도회는 박용일 목사(OC목사회장)가 기도했으며 박정희 목사(OC 여성목사회장)가 성경봉독하고 한기홍 목사가 '누가 우크라이나를 구할 수 있을까요?'(대하 14:11-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한기홍 목사는 "은 나라가 패하가 되는 경험을 우리도 했다. 세계 인류역사에 이런 일을 자주 보게 된다"라며 "약소국들이 강대국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언약을 맺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기도 했다"라 설명했다.

한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삼아주셨다. 그것보다 큰 축복이 없다"라며 "하지만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때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함께해주지 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때 언약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약한 자 우크라이나가 군사력으로 러시아를 이길 승산이 없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는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80%가 넘는다.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많은 도시들이 탈환된 것은 주님의 역사하심이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집중해 기도하기를 원한다. 반드시 불의한 자를 심판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루속히 우크라이나 종전되고 평화를 내려주시고 부흥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김교역 선교사(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군기독교협회 회장 키르치 목사, 그리고 우크라이나 현지 사람들의 증언이 담긴 영상이 소개됐다.

강순영 목사(청교도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인도로 열린 2부 기도회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강태광 목사(월드쉐어USA)가 도전의 말씀을 전했다. 김철민 장로(CMF)가 대표기도했다.

'사망자의 유가족과 부상당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샘민 목사(남가주목사회 증경회장)가 도전의 말씀을 했으며 제시카 차 변호사가 대표기도 했다. 한인선교사들을 위해서는 이성우 목사가 기도했으며 윤우경 권사(OC전도회 연합회 이사장)가 대표기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위해서는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가 기도했으며 유수연 사모(ABC교육위원)가 대표기도를, 전정중식을 위해서는 정영희 목사(드림교회)가 기도했으며 백은학 장로(미주성시화 운동본부)가 대표기도했다.

이날 타라스필렌코 우크라이나 피아니스트의 특별연주 후 김재권 장로(미주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가 우크라이나 문화센터 라리사 레이펠 이사장에게 구제비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라리사 이사장은 "우크라이나 문화센터는 지난 1961년 LA에서 설립됐다. 우크라이나는 주변국으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은 역사가 있다. 이는 한국의 역사와 매우 닮았으며 자유를 위해 싸울 것"이라며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영적체험을 하게 돼 매우 감격스럽다. 미국에서 30톤 분량의 의료품을 받게 됐다. 여러분들이 주신 비용은 금급차를 구입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날 기도회는 한기형 목사(전 남가주교회 회장)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모고 준비했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성령께서 이미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를 계기로 남가주 교계가 다시 회복되고 연합되는 것은 물론이며, 한인 이민 사회를 이끌고 섬김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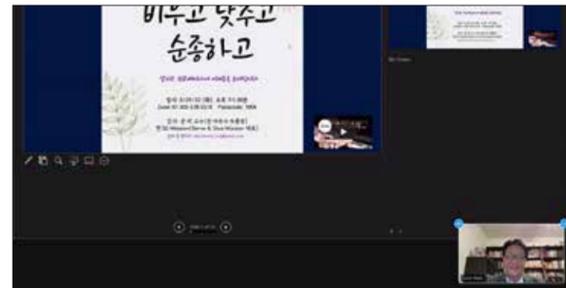
한기형 목사는 "다 내려놓고 협력한 모든 단체에 감사한다. 가칭 준비위원회가 중심돼 잘 준비되고 명실 공히 잘 이루어져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오는 17일 오전 6시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드려지는 부활절 연합새벽예배는 한국의 지용수 목사(양곡교회)가 강사로 내정됐으며, 남가주교회, 남가주목사회, 남가주한인원로목사회,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미주성시화, 민주평통, 한인회, 영사관 등 남가주교계, 교단 및 모든 교계단체와 동포단체가 연합하게 된다.

또한, 이날 모여지는 헌금은 LA한인회를 통해 우크라이나 돕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를 위한 상임고문으로는 박희민, 송정명, 정시우, 민종기, 박헌성, 진유철, 박성근, 강준민, 김지훈, 한기형, 류당열, 박효우, 엄규서, 박종대, 이영선, 정해진, 홍영환, 최학량 목사가 위촉됐다.

(이성자 기자)



엘피스가정사역원 2022 온라인선교세미나에서 박성민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고' 주제로

엘피스가정사역원 2022 온라인선교세미나

엘피스가정사역원(대표 박운송 목사) 2022 온라인선교세미나가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고'라는 주제로 줌으로 3월 29일 저녁 7시30분에 열렸다. 박성민 박사(전 아주사피서피대학교, SGM대표)가 강사로 참여했다.

김용민 목사 기도로 시작된 세미나에서 박성민 박사는 "선교에서 제일 중요한 모델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선교사로 오셨다. 그래서 선교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동역자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동역하느냐이지 내사역이라는 것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은혜라는 단어는 무자격자를 불러주시는 것이다. 무자격자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며 "선교는 천국사역이다. 하늘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분의 사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교를 생각하면서 현재 상황을 생각하게 된다. 건강,

영적인 상태, 경제적 상황 등 그 안에서 사역의 방향을 선택하게 된다. 선택하게 되면 그것들 가운데 결정하게 된다"며 "그러나 여러 상황들과 옵션들 속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옵션을 붙드는 것이 선교다. 선교의 삶은 결정의 삶이다. 따라서 최고의 될 수 없어도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박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역들이 구령으로 연결돼야 한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이다"라며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께서 하신 선교사역에 임하는 우리들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그분께 순종할 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게 될 것"이라 말했다.

(박준호 기자)

'구별된 삶' 사는 임직자 되라

동부사랑의교회 은퇴 및 임직감사예배

동부사랑의교회(담임 우영화 목사) 설립 15주년 기념 은퇴 및 임직 감사예배가 3일 오후 4시에 열렸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우영화 목사 사회로 열린 1부 예배는 권승용 목사(예수가족교회, PCA서남노회 서기)가 기도했으며 연합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김지성 목사(글로벌선교교회, PCA서남노회 노회장)가 '구별된 삶(요일5:18-21)'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지성 목사는 "예수그리스도를 가지 있는 존재로 여겨라 교회 최고의 가치인 예수그리

스도와 핏값으로 건지신 교회를 위해 목숨 걸어야 한다. 예수그리스도 안에 귀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임직자 되기를, 즐겁게 기쁘게 감격스럽게 교회사역 이루는 동부사랑의교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은퇴 및 임직예식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은퇴식을 가졌으며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이 열렸다.

이어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가 권면을 박승규 목사(광주동성교회)와 김기섭 목사(LA사랑의교회)가 축사, 최기열 장로가 임직자 대표로 담

서부교계 게시판

은혜한인교회 고난주간 특별새벽부흥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부흥회를 '고난의 유익'이란 주제로 오는 11일(월)부터 16일(토)까지 갖는다. 시간은 새벽 5시30분, 토요일 새벽 6시. 강사는 한기홍 목사,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 심상은 목사(OC갈보리선교교회), 이서 목사(미주비전교회).

▲문의: (714)446-1000

원하트미니스트리 멤버모집

원하트 미니스트리(대표 피터박 목사)가 멤버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워십팀(남여 싱어 및 인도자, 일렉기타, 베이스기타, 건반, 드럼 그외 악기연주자), 영상팀(음향, 영상, 조명, 사진, 보정 및 편집), 아트팀(그래픽, 웹디자인, 소셜미디어 관리), 행정팀(스케줄, 재정관리)이다. 원하트의 다양한 활동은 원하트의 유튜브 채널인 Oneheart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전화 또는 이메일 myoneheartministry@gmail.com으로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문의: (213)347-5080

'시와 찬미 축제'

시전(시와 찬미의 전당)과 WOMAN TO WOMAN 사역이 연합해 주최하는 '시와 찬미 축제'가 '사랑은 살아있다'는 주제로 4월 16일(토) 오후 3시 임마누엘선교교회(4120 W. Pico LA)에서 열린다.

▲문의: (818)590-6469

비영리단체 세금보고 무료강의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 세금보고 온라인 무료 강의를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선교와목회를위한정보센터) 주관으로 4월 9일(토)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그레이스미션대학교 LA 확장강의실과 선교와목회를 위한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churchhomepage.org>)에서 줌으로 진행된다. 강사는 제임스구 교수(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서 교회행정 및 커뮤니케이션, NPO, 비즈니스선교, 미디어 및 IT 담당).

▲문의: (714)393-4595 icmm@churchhomepage.org

부활절 다민족 연합예배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부활절 다민족 연합예배를 부활절인 17일(주일) 오전 10시30분에 갖는다. 이날 예배는 기쁜우리교회가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글렌데일장로교회(GPC) 내 아람교회, 알미안 교회와 연합으로 드리게 된다.

▲ 문의: (818)662-0400



키르키스탄 의료선교 및 장학재단 설립위반 기도회가 시니어클럽에서 열렸다

유라시아대학 간호학과 학생 후원

키르키스탄 의료선교 및 장학재단 설립위반 기도회

키르키스탄 의료선교팀 파송 및 유라시아 대학교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기도회가 지난 3월 27일 오후 LA한인타운에 있는 시니어클럽에서 열렸다.

오는 4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의료선교는 피터 정 장로(유라시아대학교 부총장, 아름다운교회 장로)가 중심이 돼 키르키스탄 시골에서 5박6일 동안 실시될 예정이다.

또 37년 동안 이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장금주 선교사가 세운 유라시아대학교(수도 비쉬켄 소재) 간호학과 학

생들을 위한 한아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이번 선교여행 중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 선 권사(토렌스제일장로교회)가 중심돼 설립되는 장학재단은 회원들로부터 1년에 600달러의 장학금을 모아 매년 현지 학생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남가주 지역에서 16명, 한국에서 2-3명이 합류하여 팀을 이루게 될 이번 선교팀의 영적리더로는 노정해 목사(라미라다영원한복음교회)가 맡게 됐다.

(정리: 박준호 기자)

사했다. 최기열 장로는 "동역하는 많은 권속들의 눈물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적인 사랑이 쌓여 동부사랑의교회가 창립 15주년을 맞이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다. 임직자 모두 연합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섰다. 맡겨진 직분 충성 다해 더욱 정직한

자 되겠다. 일상에서도 세상에서 모범된 삶 살겠다. 청지기로서의 본분도 잊지 않겠다. 끊임 없는 기도와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자 일동이 특송했다. 이날 예배는 함광훈 목사(PCA 서남노회 전노회장)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동부사랑의교회 창립15주년 기념 임직식에서 임직자들과 순서맡은 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부활의 기쁜 소식, 오늘의 희망’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기자회견...17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한국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국내외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마음을 모은다. 2022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대회장 이상문 목사)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회는 “올해 부활절연합예배는 코로나 19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예배 헌금 전액을 경북·강원 산불 이재민과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2022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는 오는 17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에서 열린다. ‘부활의 기쁜 소식, 오늘의 희망’을 주제로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가 설교한다. 소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한국교회가 사랑과 화해의 다리가 되고 희망을 밝히는 등불이 되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새 정 부에도 국민 통합을 위해 손잡고 함께 나아가자는 제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예배 현장에는 거리 두기를 지켜 전체 좌석의 70%에 해당하는 인원만 입장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다수의 성도가 모여 드리는 부활절 예배가 될 전망이다. 현장에 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예배는 유튜브 채널과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교단 총회장과 사무총장들이 순서를 맡으며 예배 후에는 부활절 선언문을 발표한다.

이상문 대회장은 “이번 부활절연합예배를 코로나의 아픔에서 벗어나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면서 “한국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돕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합 위한 기본합의서 만장일치 통과

한기총 임원회 재소집 비공개 회의 진행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는 3월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긴급 임원회를 열고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류영모 목사)과 작성한 통합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기총은 앞서 지난 7일 열린 임원회에서 기본합의서를 부결시켰다. 당시 임원회에서는 한교총에 가입한 세계교회

협의회(WCC) 회원 교단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WCC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대형 교단이 가입돼 있다. 그러나 참여 인원을 계승하는 과정과 기본합의서 찬성 여부를 두고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사가 폐회 후 임시대표회장에 접수됐다.

한기총은 이의를 받아들여 이날 임원회를 다시 소집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임원들은 정회와 속회를 반복하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전 임원회를 무효로 하고 다시 여는 것이 절차상 맞는지 여부를 따지는 논쟁도 있었다. 논의 끝에 임원들은 이전 임원회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속회했다. 임원회 재개회를 반대했던 이들은 회의 도중 퇴장했다.

폐회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한기총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은 “한교총과 통합의 불씨가 꺼지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한다. 시간이 얼마 없지만 앞으로 한기총과 한국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국민행동전국지부, 윤호중 “제정추진” 최근 회견 규탄

시민단체 연합체인 ‘차별금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전국지부’가 3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를 규탄하는 자리였다. 이들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해 사람의 성별을 50여 가지 성별(젠더)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헌법과 법률이 일부일치제만 허용하며, 근친혼과 동성결

혼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차별 또는 불평등이라 말할 수는 없다”면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생물학적 성별과는 무관하게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임의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을 불평등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과 연합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추진을 반대하는 강력한 국민운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르신께 공동체·관계망 만들어주자...

‘2021 한국의 사회지표’ 로 본 노령층 위기

고령사회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시니어(노인) 케어’에 대한 교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 관계망 등 주요 지표에서 고령층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노령층을 대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따뜻한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1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노령층의 ‘사회적 고립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추세다. ‘외롭다’고 답한 60대 이상의 비율은 31.4%로 전체 평균(22.2%)을 훌쩍 뛰어넘었다.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한다’는 비율도 18.7%로 전 연령대 가운데 최고치였다. ‘사회적 관계망’도 취약하다.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한 경우 빌려줄 사람이 있는지’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함께할 사람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들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60대 이상의 비율은 각각 68.9%, 35.4%, 71.6%였다. 전 연령대 중 최저치다. 노인 10명 중 3명은 이야기하고 싶어도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고, 몸이 아파 집안일을 도와 달라고 요청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60-70%는 급전이 필요해도 돈 빌릴 곳조차 없다.

교계에서도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시니어 선교와 더불어 지역사회 시니어 케어에 대한 세심하고 다양한 돌봄 사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김선일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실천·선교신학 교수는 30일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노령층의 사회적 관계망 붕괴는 곧 지역 공동체의 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교회가 지역·마을 공동체 운동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사회복지 차원의 케어에서 ‘노인과 청년’ 등 세대 간 연결이나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지역사회에서 지역 어르신 등으로 사역의 초점을 구체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1세기교회연구소 소장인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어르신들의 ‘연결망’과 ‘관계망’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 교수는 “교회가 노령층이 활동할 수 있는 장(field)을 만들어 주는 데 역점을 두면 좋겠다”면서 “노인이 더 이상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라는 인식 전환이 교회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 시설에 머물지 않는 활동 반경이 좁거나 사회적 소통이 부족한 ‘남성 어르신’ 등에 대한 ‘틈새 케어’ 필요성도 대두됐다.

최현주 시니어선교한국 간사는 “적지 않은 남성이 은퇴 뒤에 소용 대상과 배움의 기회가 줄면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교회 내부의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이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황혼 인생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천지 피해자들, 3차 청춘반환소송

전피연·유대연 “집단손해소” 회견, 포교방지 관련법제정도 촉구

이단·사이버 종교 피해자들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주 이만희)을 상대로 세 번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정부에 대해서는 신천지처럼 한국교회가 이단·사이버로 규정한 종교 집단의 사기 포교를 방지할 관련 법 제정도 촉구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와 유사종교피해대책법국민연대(유대연)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청춘반환소송 및 사기 포교 처벌 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 포교로 인한 종교 사기 피해자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홍연호 유대연 청춘반환소송 위원장은 “앞선 청춘반환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는 등 법원으로부터 신천지의 사기 포교 불법성을 인정받았다”며 “3차 소송도 피해자들이 부담 없이 폭로에 나설 수 있도록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피연 법률자문 홍종갑 변호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1차 소송 2심 판결에서 법원이 신천지뿐 아니라 직접 모략 전도에 가담한 신도들에게도 보상 책임을 함께 물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는 모략 전도가 쉽게 이뤄지지 못하고 신천지가 이를 지

시해도 신도들이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춘회복청춘반환지원센터(청청센터) 천안지부 김민환 센터장은 소송 참여 방법을 소개했다. 김 센터장은 “재판부의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며 “‘복음방’, ‘센터’라 불리는 신천지 시설에 언제 갔으며 무엇을 했는지 등 모략 포교를 당한 과정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현장에선 신천지 피해자들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다. 1차 청춘반환소송에 참여 중인 A씨와 3차 소송에 참여한 B씨, 과거 신천지 유관단체인 새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서 기획자로 일했다는 C씨는 각각 발언자로 나서 신천지로부터 입은 피해를 호소했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은 “사기 포교 방식은 개인의 자유의사를 흐리게 만들고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반강제로 특정 종교에 빠지게 만든다”며 “신천지는 신도들이 자신들의 말만 믿고 따르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망상적 종말론에 빠뜨려, 신도들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오직 교주에게만 목숨을 거는 꼭두각

시 인생을 살게 한다”며 “정부는 신천지 같은 사기 조직의 문제를 개인의 종교적 자유로만 여겨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신천지로 파탄이 난 가정을 전수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법 제정, 처벌 강화에 나서는 등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순기능회복운동으로 세계교회를 변화시키길”

세기총 제10차 정기총회, 새 대표회장 신화석 목사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신화석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4월 1일 오후 2시 서울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살후 3:16)라는 주제로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대표회장에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과 (사)한국세계선교협회의(KWMA) 대표회장을 역임한 신화석 목사(사단법인 AWMJ선교회 이사장, 안디옥성결교회 원로)를 대표회장에 추대하는 등 안건을 처리했다.

신임 대표회장에 취임한 신화석 목사는 ‘교회의 순기능회복’을 강조하면서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를 통한 순기능회복운동이 세계 속 한국 교회들에게 전이 되어서 세계교회를 변화시키는 소망을 품는다”고 전했다.

수석상임회장에는 유럽한인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역임한 장항영 목사(비엔나한인교회)를 선출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방역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킨 가운데 15개국 61명의 대의원 중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전기현 장로, 심미선 원장, 김용복 회장, 김동근 장로에게 지난 한 회기, 세기총 협력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2부 이·취임식은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직전대표회장 심평중 목사의 이임인사와 신임대표회장 신화석 목사의 취임인사가 있었으며 법인이사장 조일래 목사가 신임 대표회장에게 취임패를 전달한 뒤 4대 대표회장 고시영 목사가 취임기도를 했다.

세기총은 이날 총회선언문을 통해 “3년간 이어진 코로나

의 모든 상황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며 어려움을 당한 국내외 사역자와 선교사 그 가족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희생당한 자들을 애도하며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기를 계속 기도하며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가 하루 속히 회복되기 위해 한인동포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사제공: 세기총)



세기총 10차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한국교회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소통 문화가 크리스천 청년들이 교회를 등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현재 2030세대 가나안 성도의 거의 절반은 교회에 다시 출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다시 교회에 다니게 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목회자의 자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찬영 전도사는 22일 한국교회생태계연구네트워크(대표 한경국 목사)가 주최한 온라인 특강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자신의 장로회신학대 석사학위 논문 ‘2030 밀레니얼 세대 가나안 성도 현상에 관한 연구’를 공개했다. 설문은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과거에 6개월 이상 교회를 다녔으나 현재는 다니지 않는 2030 세대’ 103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나

설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지점은 응답자들에게 교회를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 물은 항목이다. 김 전도사는 교회 이탈 이유로 짐작되는 항목 8개를 제시한 뒤 응답자들에게 어느 정도 관련성을 따지는 체크하도록 했다. 채점 결과 가장 큰 이탈 요인은 ‘개인의 삶과 신앙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었다. 이 항목에 ‘매우 관련 있다’ 혹은 ‘조금 관련 있다’고 답한 비율은 71%나 됐다. 이어 ‘구원의 확신을 강요하는 분위기’(70%),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소통’(66%) 순으로 집계됐다.

교회를 떠난 이유를 하나만 꼽도록 했을 때도 ‘개인의 삶과 신앙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답한 비율은 17.5%로 가장 높았다. 김 전도사는 논문에서 “가나안 성도에게 한국교

회는 일방적인 소통 구조를 지닌 집단”이라며 “한국교회는 소통 구조의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적었다. 가나안 성도가 어느 연령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지

조사한 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응답자들이 교회를 떠난 시점이라고 답한 시기는 ①중고등학교 시기(20%) ②26-29세(18%) ③20-22세(17%) 순이었다. ①은 부모 등쌀에 밀려

교회에 다니던 이들이 자기 결정을 갖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②는 사회 초년생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신앙생활이 뒷전으로 밀리기 쉬울 때다. ③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고교 졸업 후 직장을 얻으면서 합법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더 많은 놀거리가 허용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가나안 성도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 연령대 성도에게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회를 떠나기 전 누구와 상담했는지 물었을 때 ‘부교역자’ 혹은 ‘담임목회자’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5.8%, 3.8%에 불과했다. 청년들이 교역자에게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

교회 재출석? ‘목회자의 자질이 가장 중요’

응답자 상당수는 다시 교회에 출석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49%가 “교회에 다시 다니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앞으로 영원히 교회에 가지 않게 될까. 만약 교회에 다시 출석한다면 무엇을 따질까. 김 전도사는 교회 재출석 여부를

주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상 83%)을 꼽은 응답자도 많았다.

교회에 다시 출석하게 됐을 때 교회 생활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 물었을 때는 ‘마음의 평안과 문제 해결’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삶의 의미와 목적 발견’(20%) ‘신앙의 성장’(15%) ‘종교적인(영적인) 체험’(8%) 순으로 집계됐다.

김 전도사는 논문 말미에 40대 가나안 성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놓았다. 교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성도의 이탈이 중직자 부재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김 전도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40대는 다음세대를 대표하는 10대의 부모 세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40대 가나안 성도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회 떠난 2030세대 “지나친 간섭, 믿음 강요가 싫었다”

김찬영 전도사, 103명 대상 ‘가나안 성도 현상’ 연구 발표

중이다. 응답자 가운데 46명은 교회에 출석하는 부모를 두고 있었으며, 이들 부모의 84.6%는 장로나 권사, 안수집사였다. 이런 결과는 부모 세대의 신앙이 대물림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결정지를 밝힌 항목들을 제시한 뒤 중요성 점수를 매기도록 했는데, ‘매우 중요하다’ 혹은 ‘조금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목회자의 인격과 설교’(85%)였다.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조화’ ‘민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7)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바른 역사관 갖기

선교사는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른 역사관을 가지기 위해서다. 개신교의 선교역사는 윌리엄 캐리의 인도를 향한 1792년으로 시작점을 잡는다.

길지는 않지만 선교사가 자신의 고정관념에 빠져있을 때에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엄청난 헌신이 때로는 식민주의의 앞잡이라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부끄럽게 드러나기도 한다. 그들 자신이 식민주의를 전파하기 위해 앞장섰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는 당시의 식민주의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평가를 역사는 내리고 있다.

역사의식이란 "어떠한 사회 현상을 역사적 관점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하고 그 변화 가운데 주체적인 관계를 가지려는 의식"이라고 사전적인 정의를 내린다. 그렇다. 선교사가 자신이 어떤 역사의 흐름 가운데 서있는지 인식하고 시간과 공간의 흐름 가운데 모두와 관계하고 있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살아야만 한다. 그래야 어떤 일을 계획하고 수행할 때에도 바른 방향을 설정하려는 노력을 시도라도 할 것이다.

선교사는 선교지의 상황을

역사의 과정에서 이해하여야 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선교지를 이해하는데 개척과 성장과 성숙의 길을 가는 척도를 랄프 윈터는 4P로 설명한 적이 있다(Pioneering, Parenting, Partnership, Participant: 개척, 육아, 동역, 참여 단계). 전도의 측면에서 보면 4E(Evangelism) 척도로

개척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 만들어낸 척도이다.

첫 번째 두 단계에서는 개척선교가 필요하고, 끝의 두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선교, 복음전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너무나 많은 선교인력과 자원이 일반선교에 쓰이고 있다는 현상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었다.

2008년에 브루스 코에 의해 보고된 지표에도 90% 이상의 선교사들이 40%의 전도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고, 아직도 10% 선교사들만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1%미만인 미전도종족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지표를 발표하였다.

한국의 KWMA에서는 한국 선교사의 사역대상에서 개척선교지역을 F1-3 일반선교지역을 G1-2로 구분하였는데 2022년 현재 개척선교지에 일하는 선교사의 비율을 58.74%로 발표하였다.

[2022년 현재 167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22,210명의 한국 국적 장기선교사, 402명의

단기선교사 및 외국국적 922명의 선교사들을 분석한 한국의 통계는 복음화율 5-10% 미만의 지역 (F1)과 박해지역 (F3), 비박해지역 (F2)을 개척선교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선교지 상황 이해

이렇게 쉬운 안내이지만 막상 선교지에 도착한 선교사가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자산인 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먼저 선교지를 선택하게 될 때에 선교지가 어떤 상황인가를 이해하고 선교지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며, 선교지에서의 선교사의 역할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선교지는 하나의 단계로만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복잡하다. 1990년대의 필리핀을 예를 들어보자.

필리핀에는 이미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었다. 마닐라에는 대형교회들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전국에 지교회들을 세우기 위해 교단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1980년대 말에 전국적인 지역교회조사에 의해 필리핀에 약6.5%의 개신교인들이 있다고 보고가 되었다.

마닐라지역과 필리핀의 몇 지역들은 이미 개척선교의 단계를 뛰어넘었다. 동역과 참여선교의 단계에 접어들어 필리핀 교회를 많은 선교사들은 개척선교와 육아선교의 단계로 접근하였다. 그것은 후원하는 교회들의 자기과시적인 선교열

회당이 서 있다고 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부끄러움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것이 서구의 식민주의나 제국주의 시대의 선교와 다른 것은 경제적 수탈 현상이 아니라 는 것만 일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인식한 얼마 후에 의식이 있었던 선교사는 그 교회의 이름을 바꾸었다.

전문적 지역조사 필요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역조사연구는 필수적인 사역이다. 필리핀에 개척선교가 필요한 지역도 많이 있었다. 모든 필리핀 지역이 마닐라와 같은 상황은 아니었다. 필리핀의 가장 큰 섬인 루손

은퇴하고 떠난 미국인 선교사 한 가정이 살았던 집만 덩그러니 버어있었다.

"와라이"란 뜻은 "아무 것도 없는(nothing)" 이라는 뜻이다. 필리핀에서 카톨릭권이지만 가장 배척당하는 종족이며, 경제적으로도 가장 낙후된 주요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 랄프 윈터가 제시한 8족짜리 종족프로필 작성 안내서를 가지고 조사를 시작하였다. 몇 달이 지나 8족짜리 필리핀 첫 번째 조사보고가 나왔다.

[와라이종족 리서치 이후에 UPR(Unreached People Research)라는 사역으로 발전하여 12개 필리핀 종족을 조사하여 1991년 필리핀 미전도종족 프로파일 출판하여 미전도종족선교에 대한 가이드로 제시하였다. 1993년까지 50여개의 필리핀 미전도종족 프로파일 만들어 선교가이드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와라이족은 미전도종족이며 사마르섬의 상황은 개척과 육아의 단계에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의 남쪽 끝을 떠나 바다로 건너면 "사마르"라는 섬이 있다. 약 125만명의 인구가 있고, 3개의 도로 나뉘어있는 큰 섬이다. 전국적인 조사에서 그 지역이 개신교인 0.7%라는 가장 낮은 결과가 보고되었다. 전국적인 평균 6.5%와 너무나 차이가 큰 것이다. 현지를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기로 하였다.

사마르 섬에는 "와라이"라는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데 왜 이런 보고가 있을까. 몇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곳을 방문하였을 때에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먼저 이곳은 선교사가 없었다. 가장 가까운 곳인 레이페 섬의 따글로반에 미국인 선교사 한 가정이 있었고, 사마르 섬에는 몇 년 전에

선교사가 떠나고 버려진 지역 상황은 심각하였다. 어려운 지역에 버려진 듯 존재하는 힘든 교회들을 방문하고 폐쇄의 식으로 가득한 사역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몇 안되는 사역자들을 만났을 때에 미국사람이 아닌 한국 선교사에 대한 의심과 기대가 섞인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었다.

마닐라지역과는 너무나 다른 현상이었다. 여기에서 선교사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까. 이를 바로 인식할 때에 바른 사역의 방향이 설정되기 때문이다. 선교사의 바른 역사의식은 너무나 중요하다. da.dr.yongcho@gmail.com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원 스토리 18강 / 십계명, 법(출19-24장) (중)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은 십계명 외에 각종 법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제단에 관한 법'(출 20:22-26), '중에 관한 법'(출 21:1-11), '폭행에 관한 법'(출 21:12-27), '주인의 책임에 관한 법'(출 21:28-36), '배상에 관한 법'(출 22:1-15), '도둑에 관한 법'(출 22:16-31), '공평에 관한 법'(출 23:1-9),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출 23:10-13),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에 관한 법'(출 23:14-19) 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있을 때도 그들 자체의 '생활 규범'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거쳐간 '하란'에도, 머물던 '가나안' 그리고 '애굽'에도 그 지역 주민들의 토착규범과 함께 '그들만의 규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법 세상이었고 힘이 있는 자가 왕이 되는 세상이었기에 누구나 왕이 되기 위해 힘을 가지려했던, 우상숭배가 넘쳐나

는 '패역의 세상'이었습니다. 삶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삶의 기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법의 내용도 알아야 하지만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법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킬만한지가 중요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애 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 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출20:2)는 선언을 잊어서

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합리적이고 아니고'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법은 궁극적으로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들의 죄성을 발견 하며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

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라'고 주신 것이지 절대 '율법대로 살면 살리고 못살면 죽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행위언약은 에덴동산에서 끝이 나고 이후 모든 언약은 '은혜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역할(갈3:24/롬 7:7/약2:10)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고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만일 히브리인 종을 두었다면 일곱째 해에는 자유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출21:2). 당시 무법천지 세상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법입니다. 한번 종이면 평생 종이고 대대로 종이지 7년째 되는 해에 자유를 준다

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법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구별'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종이 나가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주인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서 문설주에 그 종의 귀를 대고 뚫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종은 평생을 그 주인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출21:5-6). 자유의 선택이 주어졌지만 스스로가 원해 '지원하는 종이 되었기 때문입

니다. 그 종은 귀를 뚫되 양쪽이 아닌 한쪽만 뚫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한 주인의 말만 듣고 살겠다는 헌신인 것입니다. 문설주에서 '지원하는 종이 된 자는' 평생 주인의 종이 되었듯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지원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야 합니다.

삶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삶의 기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법의 내용도 알아야 하지만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십니다(출 21:12-14).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십니다(출21:15). 사람을 납치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십니다(출21:16).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 하십니다(출21:17). '생명은 생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값으로' 하셨습니다(출 21:23-25). 당시는 손가락만 다쳐도 살인이 일어나고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가족을 몰살

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롬5:15)고 선포합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사람을 죽이면 그에 따른 보상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출 21:28-36). 소는 죽어야 파망하고 주인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가 본래부터 받는 버릇이 있는데 주인이 잘 돌보지 못했기에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본래부터 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

시키고 한 가족의 문제이면 마 을 전체에게 복수를 하던 시대 에(창34장)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평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평의 법'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

라'(출20:2)고 하신 하나님은 자원하시어 우리의 '왕'이 되셨고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책임을 지십니다. 성경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의 책임을 지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hfamilyfa@gmail.com

거짓이 뿌리 내리면...

(2면에서 계속)

2. 클릭, 댓글, 공유, 좋아요를 선택하기 전에 출처부터 확인하라. 포스트에 동의하기 전에 알고리즘을 향해 이렇게 말하라. "비슷한 내용이 더 있어? 보여줘." 클릭하기 전에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여 자신을 보호하라. 일반적으로 웹본 웹사이트는 그림 아래에 표시된다. 평판이 좋고 잘 알려진 기관이 아닌 경우

참여하기 전에 그 사이트를 먼저 구글에서 검색하라. 그렇게 함으로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생성하는 미래의 허위정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3. 보는 것이 진짜 이미지가 아닐 수 있다. 사진도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 동영상은 얼마든지 맥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딥페이크가 문제다. 사진을 구글 이미지로 끌어다 놓으면 종종 원본 소스와 콘텍스트를 찾을 수 있다. 유튜브에서 연설을 검색하면 인용에서 왜곡됐을 수

도 있는 원래 맥락을 찾을 수 있다.

4. 말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안타깝게도, 외국 세력이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무식한 돌쇠로 삼는 미국 내 세 그룹 중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MIT Technology Review에 따르면 상위 20개 기독교 페이스북 페이지 중 19개를 외국의 악의적 단체(troll farms)가 운용하고 있다.

그들의 전략은 이것이다. 정적인 기독교 페이지에서 95%의 기독교 콘텐츠를 훔친 다음 거기에 5%의 미친 정보(insanity)를 살짝 포함하는 것이다. 이런 전략은 그리스도인을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유용한 바보"로 만드는 데 실로 효과적이다.

5. 헤드라인만 읽고 끝나지 말라. 마케팅 담당자가 좋아하는 것은 클릭 유도(clickbait)다. 당신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그들은 헤드라인에 단지 절반의

진실만 넣는다. 많은 사람들이 클릭하지 않고 헤드라인이 사실이라는 가정에 쉽게 빠진다. 아무리 정직한 헤드라인이라도 전체 이야기를 다 요약할 수는 없다. 전체 내용을 다 읽라.

6. 틀렸을 때, 그 사실을 인정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와 정직함이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평판보다 진실에 더 관심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우리의 주장에 엄청난 신빙성을

부여한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 이러한 냉소주의가 온라인에 넘쳐나는 비진리의 답이 될 수 없다. 그 대신 우리는 진실을 추구함으로써 진리를 사랑해야 한다. 탈맥락화에 직면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 잘못된 정보에 직면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명성을 가져야 한다.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yahoo.com

월 생명인의 왕으로 사는 생활(1)(계5:11)찬139장

구원받은 후 신자의 관심은 일상에서의 풍성한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요10:10). 이는 다른 말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입니다(롬8:2). 어떻게 우리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까? 첫째, 자기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의 세 부류들 곧 생물들, 장로들 천사들이 부른 찬송은 자기 신분을 바로 앎으로 시작했습니다. 보좌에 계신 성

부와 어린양이 누구인가를 알 때 자신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마16:16). 둘째, 하늘 찬송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알고 그만이 찬송의 7가지 주제를 주관하심을 확신하고 그를 찬양했습니다. 절대주권적 신앙만이 진정한 찬송을 하게 합니다. 셋째, 보좌에 계신 성부와 어린양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화 천상에서 보인 섬김의 본(계5:11)찬518장

계4장에 나온 천상의 구도는 5장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가 상징적으로 묘사돼 모두 보좌를 중심하게 했습니다. 좌정하신 분은 성부이시며(계4:2) 그 앞에 서신 어린양은 성자이시며(계5:6) 일곱 등불은 성령의 상징입니다(계4:5). 이 삼위일체를 중심한 구도가 신자의 삶에 기본이어야 합니다. 둘째, 네 생물과

천군천사의 섬김이 나타났습니다. 천상에서 일하는 고급 천사들은 하늘의 영물을 대표합니다. 그 모습은 오직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사자(능력), 송아지(충성), 사랍(지혜) 독수리(영성)의 특징으로 섬겼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섯 날개(겸손과 열심)로 섬겼습니다(4:7-8). 셋째, 24장로들이 섬겼습니다. 교회의 대표로 보여진 천성 장로들의 본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수 죽임 당하신 어린양(계5:11)찬496장

왜 천상의 구도와 활동이 어린양을 중심했습니까? 네 생물, 24장로 그리고 천사, 세 부류가 어린양을 향해 왜 찬송했습니까? 첫째, 그가 계시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통한 일반계시는 어린양으로만 모두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풀 한포기도 어린양과 모두 관련을 갖습니다. 일반계시를 통해 어린양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가 모두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가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특별계시

인 성경의 중심인 구속을 이룬 것도 오직 어린양의 죽음의 공로 때문입니다. 셋째, 그만이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의 섬김도 오직 중보자이신 어린양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한 자는 미리 그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양을 중심한 삶만이 바울처럼 천국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갈2:20).

목 그 능력의 원천이신 어린양(계5:12)찬358장

절원찬송으로 알려진 어린양을 향한 천사들의 찬송의 주제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그리고 찬송이었습니다. 먼저 나온 능력이란 말은 초자연적인 신성을 가리킵니다. 그 능력의 원천은 오직 어린양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 그의 신분을 바로 알 때 그 권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어린양은 성부와 동등한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으로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피조물의 작은

것 하나라도 그의 손을 떠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 그의 구속 역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그 효능을 나타내십니다. 십자가의 구속이 능력의 산물이며 능력의 원천입니다. 셋째, 그의 능력은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영원히 일하심을 생각할 때 너무 기이합니다. 그 안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의 삶을 살아갑니다(빌4:12-13).

금 그 부요의 원천이신 어린양(계5:12)찬281장

두 번째 찬송의 주제는 그 부요입니다. 어린양에게 속한 그 부요는 구속으로 그의 백성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방면에 어린양만이 부요의 근원이십니까? 첫째, 그는 만물의 부요이십니다. 모든 피조물 안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풍성과 부요는 모두 다 그 어린양의 것입니다. 어린양 중심으로 사는 자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육적부요도 어린양에게 속한 것입니다. 의

식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육체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신 그 분께 믿음으로 구하면 그 부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영적 부요 역시 어린양에게 속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생활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중심할 때 하늘에 속한 모든 기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토 그 지혜의 원천이신 어린양(계5:12)찬94장

세 번째 찬송의 주제인 그 지혜 역시 어린양의 소유입니다. 성령을 인해 전해진 영적지혜는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첫째, 창조에 나타났습니다. 창조물인 우리는 창조의 세계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만물을 통해 그의 신성을 발견하고 그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섭리에 나타났습니다. 그 지혜는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 나타나야 합니다. 머리털 하나

라도 세신바 되시는 어린양의 자상함은 성령으로 영원히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구속에도 나타났습니다. 성자가 이루신 구속의 지혜는 하나님의 의를 충분히 만족케 하였고 거기서 놀라운 구속의 지혜가 흘러나게 하십니다. 험한 세상에 유혹이 많은 때에 그 지혜를 가진 자는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롬8:28).

기독교교육 (2)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남자가 여자 수영대회에서 일등

펜실베이니아대학교(UPenn)의 한 남자 수영 선수가 지난 3월 17일 여자들의 수영대회에 출전하여 500야드 자유형에서 일등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22살의 그 남학생은 텍사스 주 오스틴 출신인데 고등학교 말기에 자신의 성정체성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성전환자 멘토를 통해 자기가 여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윌리엄 토마스(William Thomas)였는데 윌리엄에서 L. I. A자를 뺐아 이름을 리아(Lia) 토마스 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성전환을 위해 2019년 5월 호르몬 대체요법(HRT)을 시작했습니다.

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이 될 가능성이 큼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 스포츠 전체의 맥이 내리기 시작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저러나 성전환자들이 여성 스포츠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토마스는 전국대학체육협회(NCAA)의 규칙에 따라 1년간의 호르몬 대체요법(HRT) 후에 남자부 수영팀에서 탈퇴하고 여자부에 가입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만에 NCAA의 수영 챔피언이 된 겁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남자와 여자의 구별은 변할 수 없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남녀의 구별이 사람과 사회가 정의한 것이므로 시대에 맞추어 재 정의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남녀가 동등하므로 남자가 하는 모든 일을 여자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그런 일이 명문대에서 생겼다는 겁니다. 1740년에 설립되고 1755년에 인가를 받은 펜실베이니아대학교(UPenn)는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이비리그 학교입니다. 아이비리그는 북동부에 위치한 8개의 명문대들을 지칭하며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컬럼비아, 코넬, 다트머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합니다. 그 학교들은 입학조건이 까다롭고, 학문적으로 우수하고, 사회의 엘리트들을 배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지만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다른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녀의 차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남녀의 구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자신의 특성과 역할에 충실하며 서로 협력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열이 높은 부모들은 자녀를 아이비리그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문제는 명문학교일수록 성정체성, 동성애, 성전환 등에 대해 관용적인 교수와 학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 몇 년씩 노출되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영적인 건강에 관심을 갖는 부모라면 명문대만 선호하는 자세를 신중하게 평가해보아야 합니다.

남자 수영선수가 여자 수영대회에 출전하여 일등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다시는 듣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변화에 맞서지 않는다면 그런 소식이 계속해서 더 많이 들릴 것 같습니다. 물론 크리스천 개인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성경의 가르침을 굳게 잡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는 각오를 공고히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자가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는 일이 최소한 급증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 Alan Blinder, March 17, 2022, "Lia Thomas Wins an NCAA Swimming Title," <https://www.nytimes.com/2022/03/17/sports/lia-thomas-swimmer-wins.html>
 - Robert Sanchez, March 3, 2022, "'I Am Lia': The Trans Swimmer Dividing America Tells Her Story," <https://www.si.com/college/2022/03/03/lia-thomas-penn-swimmer-transgender-woman-daily-cover>
 - John Lohn, February 20, 2022, "A Look At the Numbers and Times: No Denying the Advantages of Lia Thomas," <https://www.swimmingworldmagazine.com/news/a-look-at-the-numbers-and-times-no-denying-the-advantages-of-lia-thomas/>
- jonk@db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판매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 NJ: 워터게이트 809 Broad Ave., Ridgefield, NJ |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신교 필리핀

필리핀

1. 필리핀 선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지난 3월 9일에 있었습니다. 여기 필리핀은 2022년 5월 9일로 필리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의 임기는 6년 단임제로, 대통령 선거와 함께 부통령 선거도 실시되며, 지방 선거도 함께 하다 보니 요즘 거리마다 벽마다 선거홍보로 아주 어수선했습니다. 대통령, 부통령, 상원 국회의원, 하원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후보로 인하여 거리 선거 유세를 할 때는 길거리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후보 중에는 아시아 복싱계 전설인 매니 파퀴아오가 있습니다. 파퀴아오는 현재 상원의원이며, 세계에서 첫 번째로 8체급 석권을 달성하여 복싱계에서 말 그대로 전설입니다. 인지도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복싱과 정치는 분야가 너무 달라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필리핀의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선거 전후에, 라마단 전후에, 크리스마스 전후에 돈이 많이 필요하여 이슬람 계급과 단체에서 남자를 많이 하여 이 기간 중에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고 경찰들도 저희 부부의 안전을 자주 도와주었습니다. 2년 반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 기간 중에는 남자가 없어 마음은 평안합니다.

2. 이상 기후

코로나로 일상적인 생활이 많이 바뀌었지만 거기에 맞게 생활해 나가는 현실이 여전히 불편합니다. 예전 같으면 3월 말에 여름 방학을 시작하게 되고 한창 더위가 시작되는 건기철입니다. 요즘엔 이상 기후로 인하여 건기철 임에도 불구하고 우기철처럼 벌써 3주째 비가 많이 내립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주인이 좋아서 월세가 아주 저렴하지만 집이 너무 오래 되고 낡아 비가 내리면 여기저기 빗물이 새고 지붕이 넓어 목수는 빗물이 어디서 흘러 내려오는지 좀처럼 찾아내지 못하여 비가 많이 내리면 플라스틱 통을 받쳐 놓은지 20년이 되어갑니다. 집이 너무 집인데 하얀 개미로 인하여 시간만 가면 마루 작업을 하며 천장작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작업을 하였는데 너무 힘들어 요즘은 학교에서 일꾼 두 명을 데려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 4차 나눔

2022년 1월 28일에는 코로나가 시작되고 4차 나눔을 하였습니다. 학교 학부모들 중에 정규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가난한 어부거나 특별한 직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림빠 마을에서 시내까지 교통비가 두 배가 올랐습니다. 림빠 마을에서 라바안 버스터미널까지 오토바이로 넘어 가야 하는데 25페소까지 50페소로 올랐고 라바안 버스터미널에서 시내까지 50페소에서 100페소로 올라서 시내 한번 다녀오면

하루 일당이 차비로 다 사용될 정도입니다. 림빠 마을에서 시내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필리핀 안에 사립학교 200여개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4차 나눔을 통해 학부모들이 고마워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후원을 계속해주셔서 사역이 진행되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4. 대면수업준비

지난 1월에 교육청 직원들이 저희 새희망 학교에 찾아와서 8월초부터 대면수업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준비할 지시사항을 알려 주었습니다. 요즘에 작은 창고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 교실 건물 지붕 위에 학교 이름을 페인트로 칠하는 일, 교실 문을 하나씩 더 만드는 일, 과일과 실과수업을 할 수 있는 교실 만드는 일, 양호실 개선하는 일, 학교 담에 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페인트로 칠하는 일 등등 할 일이 많습니다.



작은 교무실 안에 보관되어 있는 악기와 여러 자재들은 다른 창고로 옮기기 위해 창고를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작은 교무실은 과학실로 사용하려고 작업 중입니다. 교실 바닥과 복도 바닥에는 두꺼운 컬러테이프를 방향표시를 하여 이동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면수업 준비로 비용이 좀 필요하였는데, 김천의 윤 목사님이 특별헌금을 해주셔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도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5. 따우속 학생들

며칠 전에 따우속 무슬림 대학생들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하였습니다. 여기 4명 중에 2명은 저희 새희망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현재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여 공부하고 있으며 지금은 2학년이고 곧 있어 3학년이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라 자주 모임을 할 수 없기에 한동안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를 하고 성경공부를 하려고 서로 약속하였습니다.

저희 학교 졸업생 학생으로 '신디라'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15살 나이인데 2주 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신랑은 18살인데 공부도 안하고 직업도 없고 근근이 생선을 잡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육이 제대로 안되고, 코로나로 삶이 어려워 입 하나 줄이려고 결혼을 시킵니다.

오정운 공운자 선교사 드림
ohgongtak@hanmail.net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51. 온전한 가정예배

온전한 가정선교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아버지의 권위, 부권 회복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 부권 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가정예배의 활성화에 있습니다. 가정예배의 제사장, 인도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사 사역(Jail Mission)을 하시는 LA Sheriff Department의 Senior Chaplain, 이병희 목사에 의하면 LA카운티 교도소에 한인 재소자가 90명, 주 전체에는 약 400-500명 정도 수감되어 있는데, 평균 4인 가정으로 볼 때 약 2000명의 한인들이 카

머 살아가겠다는 의지적 결단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4)가정예배는 어떤 형식에 매이거나 강제를 따는 것보다, 온 가족이 즐겁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5)가정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꾸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6)가정예배는 지루하지 않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함으로 예배의 의미를 심어 주어야 합니다.

2. 효과적인 가정예배를 드리려면?

(1)가정예배 시간은 아침 출근, 등교 전이나 저녁식사 후 등

가정예배로 부권회복과 대환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합시다

운터 교도소와 직접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최근 4-5년간 저들을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90% 이상이 교인 출신이었고, 3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첫째, 한 번도 가정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고 둘째, 한 번도 새벽기도에 나가본 적이 없었고 셋째, 한 번도 교회에 사명을 가지고 헌신해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가정예배가 아버지의 권위, 부권 회복과 온전한 가정선교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단적으로 말해 줍니다. 이제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1. 효과적인 가정예배를 위한 6가지 전제

(1)가정예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2)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와 임가가 말과 행동에서 신앙적, 영적인 모범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3)가정예배를 통하여 가정전국을 이루고 누리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합니다. (2)가정예배의 횟수는 하루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그리고 한 달에 두 번 등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면 좋겠지만, 이민가정의 특성상 매일 못 드린다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정성입니다. 특히 명절, 생일, 주모일 등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예배를 드림이 바람직합니다. (3)가정예배의 소요시간은 20분 정도가 바람직하나 30분이 초과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가정예배의 인도자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인 아버지가 주도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아버지가 안계시거나 출타 시에는 어머니가 예배인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16세 이상인 경우는 순서를 정하여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5)아버지는 가정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 양육하며, 예배 후 안수하며 축복을 빌어 줍니다. (6)가정예배를 마친 후 서로 약속하며 꺼안고 가볍게 등을 두드려 주

는 스킨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7)가정예배 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간단한 다과를 나누며, 간증도 하고, 상담도 하고, 교제와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3. 가정예배를 위한 12가지 제안

(1)가정예배에 최우선을 둡니다. (2)아버지가 인도자가 되는 것이 이상적이거나, 가족 중에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이 시작합니다. (3)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4)성경을 교재로 합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좋은 가정예배안내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순서는 다양하고 변화 있게 하되, 찬양, 간단한 기도, 말씀, 적용을 위한 토의 또는 암송, 기도의 순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6)되도록 자녀들이 중심이 되도록 합니다. (7)가능한 한 모든 사람이 순서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8)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진행합니다. (9)한두 번하고 은혜가 안 된다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는 인내를 배웁니다. (10)자녀들에게 어려서

부터 예배습관을 길러주도록 합니다. (11)때로는 외부 손님이나 강사를 초청해 봅시다. (12)꼭기도, 대화식 기도, 돌림기도, 대표기도 등을 변화 있게 활용합니다.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대환란의 때가 도래하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단12:11)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에서 비대면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비대면예배를 드리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감안해보면, 앞으로 비대면예배까지도 금하고 교회도 폐쇄한다면, 말세를 살아가는 마지막 성도로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요? 가정은 작은 교회요,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가정예배로 훈련된 가정교회(Family Church)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예배의 생활화가 중요합니다. 가정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부권도 회복시키고, 가정문제도 해결하고, 말세의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도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h3>		<h4>뉴욕세미네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40 새벽기도: 오전 5:30 수요 저녁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p> <p>Tel: (516)220-2014, www.nyseminet.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신국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강좌: 오후 08:00 수요성경강좌: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61-9199, www.mcaekyo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h4>뉴욕부르클렌제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02:00 수요성경강좌: 오후 08:45 금요기도회: 오후 08:45 새벽기도회: 오전 05:30 성경찬양: 오전 10:00(화,토)</p> <p>Tel: (718)265-2684, www.kbc.org 14 G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4>뉴욕사벽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p> <p>Tel: (917)733-7397, bms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성경강좌: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겸용), (917)73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양무리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p> <p>Tel: (718)662-6611 147-01 38th Ave. Flushing, NY 11354</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철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www.cpc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4>뉴욕주산양교회</h4> <p>담임목사: 김희복 주일예배: 오후 1:30 다일주일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구역모임</p> <p>Tel: (646)270-9037, kimheebok7@gmail.com 76-11 Woodside Ave., Elmhurst, NY 11373</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성경강좌: 오후 8:30 (매주1,3,주)</p> <p>Tel: (201)342-9194, sundog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창립성경강좌: 오후 1:30 주일학교전원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강좌: 오후 1:30 수요 찬양모임: 오후 8:30</p> <p>Tel: (718)861-2171, Fax: (718)861-3631 livingstonech.org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h4>베이스айд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식 경남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8: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 오전 5:45 건교인특례새벽예배: 매주토요일 오전 5:30</p> <p>Tel: (718)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창립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토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4>사랑의등산교회</h4> <p>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p> <p>Tel: (516)433-088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p>	<h4>어린이개혁교회</h4> <p>담임목사: 유승례 EM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p> <p>Tel: (845)848-2013</p>	<h4>은누리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문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p> <p>Tel: (845) 359-1458, http://onnure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886-4040, www.kqpc.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h4>밴쿠버빌리델리아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훈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 오전 8: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일 셋째, 넷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매월 둘째(금) 오후 7:30</p> <p>Tel: (604)584-5780, www.pcc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아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4>브리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날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8, Fax: 3209-8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p>	
<h4>아르헨티나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9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시45분기도회: 아침 7:40 유.초.고.동.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유문권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오전예배: 오후 2:00(영아)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4>하와이 행복안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un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아)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4>멕시코 현지인 교회</h4> <p>담임목사: 임한근 선교사 1. 멕시코 연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교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p> <p>Tel: (52)33-3607-4111, hanimk@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pe MEX(멕시코)</p>

